

세상과함께 2024



1월의 기념일 기부

당신의 특별한 날이 누군가에게 선물이 됩니다.

당신의 소중한하고 감사한 순간, 특별한 선물을 나눠주세요.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이웃, 우리의 이웃들

뜻깊은 생일 22년의 인연, 결혼기념일, 우리의 아이의 돌잔치

www.bbsk.or.kr

세상과 함께

따뜻한 새해맞이, 1월의 기념일 기부


- 당신의 특별한 날이 누군가에게 선물이 됩니다.

일상의 소중하고 감사한 순간,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기꺼이 후원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www.bbsk.or.kr

세상과 함께

미안마 YGW-친환경농업 교육 지원



학생들이 직접 키운 박과 함께 꿀도 주렁 주렁

www.bbsk.or.kr

세상과 함께

세상과 함께하는 반디 함께레터



www.bbsk.or.kr

세상과 함께

이 시련 가운데서도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싶은 어린이들을 위한 희망레터

www.bbsk.or.kr

세상과 함께

쌀 한포대 후원으로 미안마 전정 피란민의 일상이 가능합니다.



www.bbsk.or.kr

세상과 함께



www.bbsk.or.kr 캐넌 피란민 2,677 가구에 쌀을 보냈습니다.



쌀 한포대 릴레이
미안마 전정 상황은 각속속 심각해져...

www.bbsk.or.kr

세상과 함께



2월 쌀 한포대 릴레이



쌀 한 포대 25,000원 후원은 미안마 전정 난민에게 한 달간의 소중한 식사와 구호물품이 됩니다.

www.bbsk.or.kr

세상과 함께

아이를 마음과 미래를 밝히는, 세상과함께 미안마 교육 프로그램



www.bbsk.or.kr

세상과 함께

1월 쌀 한포대 릴레이



쌀 한 포대 25,000원 후원은 미안마 전정 난민에게 한 달간의 소중한 식사와 구호물품이 됩니다.

www.bbsk.or.kr

세상과 함께

1월-두번째 기념일 기부

당신의 특별한 날이 누군가에게 선물이 됩니다.

일상의 소중하고 감사한 순간, 특별한 선물을 나눠주세요.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이웃, 우리의 이웃들

뜻깊은 생일

www.bbsk.or.kr

세상과 함께

따뜻한 새해맞이, 1월의 기념일 기부

두 번째 소식

- 당신의 특별한 날이 누군가에게 선물이 됩니다.

일상의 소중하고 감사한 순간,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기꺼이 후원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www.bbsk.or.kr

세상과 함께

문화정착교육



www.bbsk.or.kr

세상과 함께

2월의 기념일 기부

당신의 특별한 날이 누군가에게 선물이 됩니다.

일상의 소중하고 감사한 순간, 특별한 선물을 나눠주세요.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이웃, 우리의 이웃들

뜻깊은 생일

www.bbsk.or.kr

세상과 함께

겨울 끝자락, 2월의 기념일 기부


- 당신의 특별한 날이 누군가에게 선물이 됩니다.

일상의 소중하고 감사한 순간,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기꺼이 후원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www.bbsk.or.kr

세상과 함께

아이 돌 기념



www.bbsk.or.kr

세상과 함께

여러분의 분유, 식량 지원이 많은 아이들과 피란민을 살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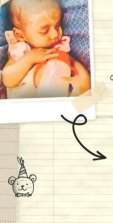


www.bbsk.or.kr

세상과 함께

우월 분유 후원 포스터원 크리에이티브 조우원아들


2023년 1월 20일에 태어난 태아가, 세상의 빛을 본 이후엔 21일, 태반을 YGW 차고로 옮겼어. 어머니의 분유 후원으로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네.



www.bbsk.or.kr

세상과 함께

두들 기념



www.bbsk.or.kr

세상과 함께

세상과함께-물품 후원 소식

나눔으로 따뜻한 식탁



www.bbsk.or.kr

세상과 함께

<마켓레이저 헤븐>에서 설 연휴 직후에 신선한 사과 86kg를 후원해주셨습니다.

와인 도우 살날입니다!

사과는 산돌밭달강대안학교, 천안열린문화지역 아동센터, 청소년도서관, 옥방촌도우미회, 민들레구수집, 미혼우센터 희망날개, 한마을사회복지센터에 보내드렸습니다.

www.bbsk.or.kr

세상과 함께

미얀마 YGW-친환경농법 교육 지원



학생들이 직접 키운 박과 함께 꿈도 주렁
주렁

사단
법인
세상과함께

[미얀마 친환경농법교육 지원] 학생들이 직접 키운 박과 함께 꿈도 주렁주렁

미얀마 고아학교 -파테인2 YGW학교는 농사지를 땅도 비교적 넓게 있고, 물도 풍부한 지역이어서 제일 적극적으로 친환경 농법을 활용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채소류는 직접 재배해 먹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오전, 오후로 틈틈히 시간을 내어 직접 텃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사도 배울 수 있고, 직접 키운 채소를 먹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박, 오이, 호박, 고추, 로젤, 수박, 오크라, 고수, 무 등 점점 재배 작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라부타 YGW학교는 물사정이 좋지 않아 펌프를 돌려 어렵게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로젤, 모닝글로리, 박을 키우고 있습니다. 조만간 라부타 학생들도 수확의 즐거움을 경험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부타 학교가 처음 농사를 시작할 때의 영상과 최근 영상을 즐거운 음악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세상과함께는 전쟁 중인 미얀마 YGW학교에 지속가능한 삶을 준비하며 친환경농법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오염으로부터 삶의 터전을 지키고, 천연퇴비로 식재료를 생산하는 일을 배우는 친환경농법 교육에 응원 부탁드립니다.

미얀마 YGW 학교 친환경 농법 교육지원

사단법인 **세상과함께** 카렌 피란민 2,677 가구에 쌀을 보냈습니다.



2023년 마지막 달 카렌 피란민 2,677 가구에 쌀을 보냈습니다.

"항상 쌀을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카렌난민위원회 의장님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2023년 12월에는 피란민 10,704명이 모여 있는 마을에(Ter Nae Cha, Ta Kren, Tee Lo 지역 35개 이상 마을) 쌀과 식료품을 지원했습니다. 전쟁이 심해져 군인들의 보호아래 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얀마에 다녀온 쏘에포 목사님도 카렌 지역의 전쟁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피란민들이 늘어나 식료품 후원이 점점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카렌 피란민에게 쌀 한포대 후원은 하루를 보낼 수 있는 희망이 됩니다. 새해에도 카렌 피란민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미얀마 카렌 피란민과 함께하기>



후원 계좌 : 농협 301-0174-7361-31 사단법인 세상과함께

후원 링크 : <https://online.mrm.or.kr/8CjqhLB>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 주세요.

세상과함께 사무국 010-5940-6198

#세상과함께 #카렌 #피란민 #쌀 #후원 #릴레이 #함께

여러분의 분유, 식량 지원이 많은 아이들과 피란민을 살렸습니다.



2023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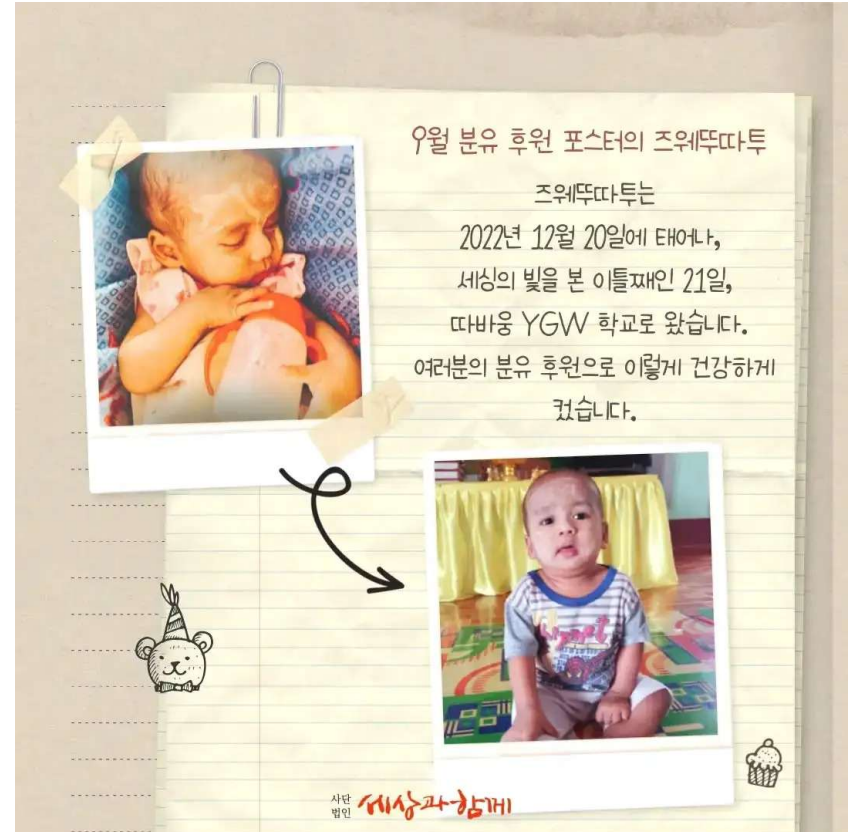
사단법인 **세상과함께**

여러분의 분유, 식량 지원이 많은 아이들과 피란민을 살렸습니다.
-2023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 한 해, 세상과함께는 2,933명 후원자분들의 마음을 모아 지속된 내전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미얀마 YGW 학교에 영유아 분유 지원, 긴급 식량 지원, 태국 국경 지역 전쟁 피란민에게 식료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미얀마 YGW 학교에는, 전쟁으로 부모의 품을 잃은 아이들,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라 태어난 지 하루 만에 학교로 찾아온 아가들도 있습니다. 세상과함께는 2023년에 총 14개의 YGW 학교에 영유아 239명에게 3,000통 이상의 분유를 지원하였습니다. 모유를 먹을 수 없는 아가들에게 엄마의 마음으로 분유 1통을 후원해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YGW의 아가들은 지금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치열한 전쟁으로 사가잉, 까야 YGW는 모든 후원이 끊겼습니다. 따웅지, 파이찌 YGW 는 학교는 전쟁을



9월 분유 후원 포스터의 즈웨뚜따투

즈웨뚜따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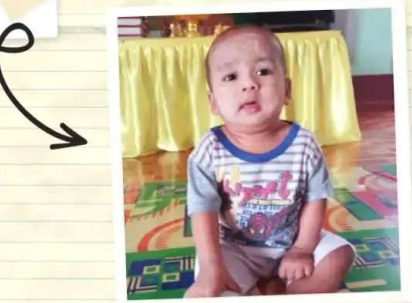
2022년 12월 20일에 태어나,

세상의 빛을 본 이틀째인 21일,

따바웅 YGW 학교로 왔습니다.

여러분의 분유 후원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사단법인 **세상과함께**

피해 살기 위해 찾아오는 아이들로 포화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네 학교는 세상과함께 지원 없이는 아이들을 돌보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힘든 상황에서 학교는 폭격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찾아온 이들에게도 먹거리와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의 생명이 소중하기에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눠 같이 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함께는 네 학교에 매달 쌀 1,500포대와 식료품을 긴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험을 감내하면서 학생들을 온 정성을 다해 보살피고 계신 YGW 선생님들의 노력과 세상과함께 후원자분들의 도움으로 2,000여명 학생들은 내전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보호받고 지내고 있습니다.

미얀마 -태국 국경 지역에서는 폭격과 전투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고 숲속으로 피신한 피난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상과함께는 매달 쌀 3000여 포대, 식용유, 라면 등 식료품과 모기장, 방수포 등을 피란민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의 규모와 심각성을 따져 상황이 긴급한 지역에 우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할 수 없는 피란민의 규모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지원이지만, 매달 2,000 ~ 3,000명의 피란민에게 이 지원은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소중한

세상과 함께하는 편지 함께레터



▲ 반찬 하나로 밥을 먹는 전쟁 속 미얀마 YGW 학교 아이들
(세상과함께 홈페이지 바로가기)

1월 함께레터

날로 격해지는 미얀마 내전 속에서 정글로 피신한 피란민과 고아학교 아이들을 위한 지원은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감사와 축하, 어려운 이들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동참한 기념일 기부 소식, 학생들의 소중한 마음이 모인 저금통과 미얀마 친구들에게 전하는 편지가 담긴 저금통 기부 소식도 있습니다.

전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분유지원을 통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귀염둥이들 사진과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월의 편지를 전합니다.



함께레터 바로가기 : <https://stib.ee/ojma>

#세상과함께 #함께레터 #뉴스레터 #후원 #함께



이 시린 겨울이 있기에
따뜻한 포옹이 가능하고
이 추운 떨림이 있기에
아픈 마음들을 헤아리네

- 걷는 독서, 박노해

몇 개의 숫자와 시곗바늘로 지난해와 새해를 가른다고
새해가 오는 건 아니라면서요.


어린 날, 설날이 제일 좋았던 건 세뱃돈과 서로 돌보고
나누는 마음 덕분이었습니다.

전쟁과 가난으로 가족을 잃은 미얀마 고아 학교 아이들. 밀
림에서 시린겨울을 지내는 피란민들에게 새 하루를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그 새날들이 이어지도록 세상과함께는 올해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길. 푸른용의 기운이 몸과 마음 속에 내내 깃
드시길. 따뜻한 미소를 매일 매일 만나는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세상과함께 이사장 유연 드림

전쟁 속, 설날을 잃은 아이들에게도
세뱃돈을 나눠주세요
후원계좌 : 농협 301-0174-7361-31(세상과함께)



이 시린 겨울이 있기에
따뜻한 포옹이 가능하고
이 추운 떨림이 있기에
아픈 마음들을 헤아리네

-걷는 독서, 박노해

<새해를 어떻게 들일까?>

몇 개의 숫자와 시곗바늘로 지난해와 새해를 가른다고 새해가 오는 건 아니라면서요.

그럼 어떻게 새해를 들일수 있을지 꿈꿈이 생각해봤습니다. 어린 날, 설날이 제일 좋았던 건 세뱃돈과 서로 돌보고 나누는 마음 덕분이었습니다.

전쟁과 가난으로 가족을 잃은 미얀마 고아 학교 아이들. 밀렵에서 시린겨울을 지내는 피란민들에게 새 하루를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그 새날들이 이어지도록 세상과함께는 올해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길. 푸른용의 기운이 몸과 마음 속에 내내 깃드시길. 따뜻한 미소를 매일 매일 만나시는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세상과함께 이사장 유연 드림

후원계좌 : 농협 301-0174-7361-31(세상과함께)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하기 : bit.ly/3tBvrbO



쌀 한포대 후원으로 미얀마 전쟁 피란민의 일상이 가능합니다.

세상과함께는 카렌난민위원회를 통해 미얀마 전쟁 피란민이 모여 있는 3군데 지역에 각각 30kg 쌀 200포대, 방수포 200개를 지원했습니다. 난민들은 지원받은 물품을 옮기느라 분주합니다. 한편에서는 아이들이 공부도하고, 공놀이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이지만 전쟁 피란민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기까지 피란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세요.

<미얀마 카렌 피란민과 함께하기>

후원 계좌 : 농협 301-0174-7361-31 사단법인 세상과함께

후원 링크 : <https://online.mrm.or.kr/8CjqhlB>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 주세요.



세상과함께 사무국 010-5940-6198

#세상과함께 #미얀마 #전쟁 #피란민 #쌀 #한포대 #릴레이 #후원 #함께



아이들 마음과 미래를 밝히는, 세상과함께 미얀마 교육 프로그램

-문화창작교육과 직업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전쟁 속에서도 밝고 씩씩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세상과함께는 미얀마 YGW 고아 학교에 문화창작교육, 직업교육, 친환경농법교육의 3가지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YGW 학교 전 연령 아이들에게 미술, 바느질, 목놀이, 한글 등을 교육하는 문화창작 교육. 네피도 YGW 학교 학생들에게 운영하는 직업교육 재봉반, 농업 기술도 배우고 자급자족 힘을 키우는 친환경농법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미얀마 쿠데타 이후 공교육과 사회적 교육이 무너진 현실에서 아이들 미래를 위한 튼튼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창작교육

2023년 문화창작교육은 5월부터 11월까지 4,300여 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재)이더의 명글라바 선생님들과의 온라인 화상 교육과 미리 보낸 교육 영상, 교재와 재료를 통해 선생님과 아이들은



프로그램을 배우고 경험하였습니다. 교육 과목은 미술, 바느질, 책놀이, 몸놀이, 보건, 한글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미얀마는 현재 전쟁 중이라, 학교 밖에서 폭격 소리와 전쟁 소식이 들립니다. 그 안에서 아이들은 두려움과 긴장감이 늘 함께합니다. 문화창작교육에서 배우는 과목들은 아이들에게 자유로움과 새로운 흥미를 줍니다. 몸놀이를 하면, 여러 지방에서 모여 쓰는 말도 다르고 서툰 아이들이 함께 몸을 쓰고 신나게 놀이하며 유대감도 느끼고 즐거워합니다. 책놀이, 미술, 바느질은 학생들이 배움 속에서도 자유롭게 표현하고 창의성을 발휘합니다. 보건의료교육으로 몸과 건강에 대해 알고, 한글 교육도 관심이 높고 더 배우려고 합니다. 문화창작교육은 전쟁 중 밖에 나가기도 힘들고, 운동장 나가는 시간도 정해진 아이들에게 유일한 문화생활이고, 몸과 마음을 키우는 살아있는 교육입니다.

직업교육

미얀마의 네피도 YGW 학교는 고아들만 모인 학교입니다. 네피도 지역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도 돌봄과 교육이 필요한 고아들이 모여서 생활합니다. 세상과함께는 여기서 직업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특히나 직업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많이 배우고 싶은 재봉 기술을 먼저 교육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 4개월간의 30명의 기초반을 시작하여 재단부터 해서, 8종류의 옷을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 수업과 병행하느라 체력적으로 힘들 수도 있지만, 학생들의 재봉 기술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어두운 밤까지 밝은 웃음을 활짝 머금고 옷을 만들었습니다.

작년 10월 말에 고급반을 시작하였습니다. 일주일에 4번 강사분께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나머지 3일은 학생들끼리 저녁 7~9시까지 재봉 기술을 익힙니다. 강사진과 세상과함께는 밀접하게 소통하며 더 좋은 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직업교육은 배우고 만들어 내는 성취감이 높고, 실제 졸업한 이후 재봉사가 많은 미얀마에서 의상 디자이너나 재봉사 등 다양한 직업을 꿈꿀 수 있게 합니다. 학생들이 기술을 익혀 이후에 전문반을 만들면, 예비 강사로 교육하여 각자의 고향으로 가서 그곳에서 또 다른 아이들의 꿈도 키워줄 수 있습니다.

2023년도 미얀마 아이들의 마음과 미래를 밝히는 미얀마 교육 프로그램은 지원해주신 후원자분들 덕분에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에도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응원해주세요.

문화창작교육 후원하기

문화창작교육 후원 계좌 : 농협 301-0313-4145-41(세상과함께)

홈페이지에서 후원하기 : <https://bit.ly/3klPXWY>

직업교육 후원하기

직업교육 후원 계좌: 농협 301-0313-4145-41(세상과함께)

홈페이지에서 후원하기: <https://bit.ly/3klPXWY>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010-5940-6198

#세상과함께 #미얀마 #미얀마쿠데타 #YGW #교육후원

세상과함께-물품 후원 소식

나눔으로 따뜻한 식탁



<마켓레이지 헤븐>에서 후원해주신 사과 86kg을
일곱 단체에 지원해드렸습니다.

사단
법인
세상과함께

[세상과함께-물품 후원 소식]

<마켓레이지 헤븐>에서 설 연휴 직후에 신선한 사과 86kg를 후원해주셨습니다.

와! 오늘도 설날입니다!!

사과는 산돌발달장애대안학교, 천안열린문화지역아동센터, 청소년도서관 작공, 쪽방촌도우미회, 민들레국수집, 미혼모센터 희망날개, 한마음사회서비스센터에 보내드렸습니다.
새콤달콤 미니사과, 시나노골드는 어린이와 학생에게 달콤한 부사는 어르신들께 소중하게 전해드렸습니다.

건강한 식료품 나눔으로 식탁이 넉넉하고 따뜻해지고 오늘의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마켓레이지 헤븐>에서 설 연휴 직후에
신선한 사과 86kg를 후원해주셨습니다.

와! 오늘도 설날입니다!!

사과는 산돌발달장애대안학교, 천안열린문화지역
아동센터, 청소년도서관 작공, 쪽방촌도우미회,
민들레국수집, 미혼모센터 희망날개,
한마음사회서비스센터에 보내드렸습니다.

새콤달콤 미니사과, 시나노골드는 어린이와 학생에게
달콤한 부사는 어르신들께 소중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사단
법인
세상과함께

[세상과함께-물품 후원 소식]

<마켓레이지 헤븐>에서 설 연휴 직후에 신선한 사과 86kg를 후원해주셨습니다.

와! 오늘도 설날입니다!!

사과는 산돌발달장애대안학교, 천안열린문화지역아동센터, 청소년도서관 작공, 쪽방촌도우미회, 민들레국수집, 미혼모센터 희망날개, 한마음사회서비스센터에 보내드렸습니다.
새콤달콤 미니사과, 시나노골드는 어린이와 학생에게 달콤한 부사는 어르신들께 소중하게 전해드렸습니다.

건강한 식료품 나눔으로 식탁이 넉넉하고 따뜻해지고 오늘의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세상과 함께하는 편지 **함께레터**



<세상과 함께하는 편지 2월 함께레터>

겨울의 끝자락에서 눈소식이 들립니다.

눈꽃 핀 겨울산은 너무도 아름답지만, 야생동물들은 배고픔에 힘겨워한다고 합니다.

세상과함께에는 고통받는 이웃, 못 생명들을 헤아리는 귀한 마음들이 모입니다.

따뜻한 손길로 모아준 저금통과 소중한 감사한 순간을 함께 나누는 기념일 기부.

겨울산을 녹이는 봄의 기운처럼 얼어있는 세상을 녹여주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힘이 됩니다. 늘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세상과함께**

“우리의 꿈은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안정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발달장애대안학교 산돌학교
야간, 주말 돌봄과 위기상황 지원...

“우리의 꿈은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안정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 야간·주말 돌봄과 위기상황 지원까지 감당한 산돌학교

-2023년 18명의 발달장애 청년들이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발달장애대안학교 산돌학교 지원 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상과함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http://twtw.o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607

♣ 세상과함께는 산돌학교의 사각 시간 돌봄, 일자리 교육, 발달장애인 예술단 ‘그랑’의 활동과 김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발달장애 청년(산돌학교) 후원 계좌:
우체국 107342-01-001212 (사단법인 세상과함께)

발달장애인 예술단 그림 7번째 공연
작/연출_김영희

플라스틱 버는 날

배우
배열, 서요한, 김운현, 최현석
고태환, 정예슬, 김진성, 박찬기
전태준, 허재민

스텝
음향오퍼 _ 김소현
조명오퍼 _ 신동화
영상오퍼 _ 강현혜
진행도움 _ 김현숙

공연일시 : 2023년 10월 7일 토요일 낮 2시
공연장소 : 산돌소극장 (산돌학교 1층)

홈페이지 후원 : (후원링크) <https://bit.ly/3lwPIHS>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세상과함께 사무국 (010-5940-6198)으로 연락주세요.

#세상과함께 #국내후원 #발달장애대안학교 #산돌학교 #함께



전쟁 속 미얀마 아이들에게 쌀을 지원했습니다

- 미얀마 YGW 고아학교 긴급구호-

식단
발전
세상과함께

[미얀마 긴급구호] 전쟁 속 미얀마 아이들에게 쌀을 지원했습니다.

2021년 쿠데타 이후 내전 3년째. 미얀마는 여전히 전쟁 속에 있습니다.

2023년 10월 이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내전이 격렬해졌습니다. 그 여파로 4개 YGW학교는 지역의 통신과 도로가 차단되거나 학교로 모여드는 피난민들로 인해 기본 식량 조달이 어려워져 세상과함께에 긴급지원을 요청해왔습니다.

세상과함께는 현지상황을 파악하고 전쟁 지역에 고립된 아이들을 위해 작년 12월 말에 긴급하게 <쌀 1천포대 보내기> 모금을 진행했고, 1,385포대의 후원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모인 후원금으로 즉시 4개 학교에 매달 식비를 지원하여 3월 현재까지 총 쌀 1,175포대 비용을 전달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합니다.



학교로 모여드는 피란민- 따옹지YGW-

2023년 10월 이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내전이 격렬해졌습니다. 그 여파로 4개 YGW학교는 지역의 통신과 도로가 차단되거나 학교로 모여드는 피난민들로 인해 기본 식량 조달이 어려워져 세상과함께에 긴급지원을 요청해왔습니다.

**2021년 쿠데타 이후 내전 3년째.
미얀마는 여전히 전쟁 속에 있습니다.**



전쟁지역은 쌀 가격이 두 세배 올라서 더 힘들어졌지만, 세상과함께의 지원으로 견디고 있습니다.

지난 해 한 포대 25,000원이던 쌀 값이 현재 까야, 사가잉 지역에서는 7만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마저도 군부의 통제로 한 번에 몇 포대 밖에 구입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식료품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학교를 찾는 후원자가 거의 없어 학교살림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쟁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여전히 하루 하루가 힘듭니다. 통신이 두절될 때가 많습니다. 사가잉 YGW학교는 하루 종일 폭탄소리, 총소리로 시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전쟁을 피해 주민 400명이 와서 함께 지낼 때도 있습니다. 따옹지 YGW학교에 주변 지역 피란민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도움 요청을 받고 전쟁지역으로 달려가 아이를 데려 오기도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선생님과 스님들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세상과함께하는 편지 함께레터



▲ 9살 생일날 어머니와 함께 저금한 돈을 기부한 조정범 어린이
(세상과함께 홈페이지 바로가기)

함께레터 인사말

따스한 봄날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생일, 개원 등 좋은 날을 맞아 그간에 모은 저금통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상과함께는 회원들이 보내주신 마음 고스란히 담아 세상과 함께 하겠습니다. 2024년 4월 21일에는 창립 10주년을 맞은 세상과함께 센터 준공식도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세상과 함께하는 편지 3월 함께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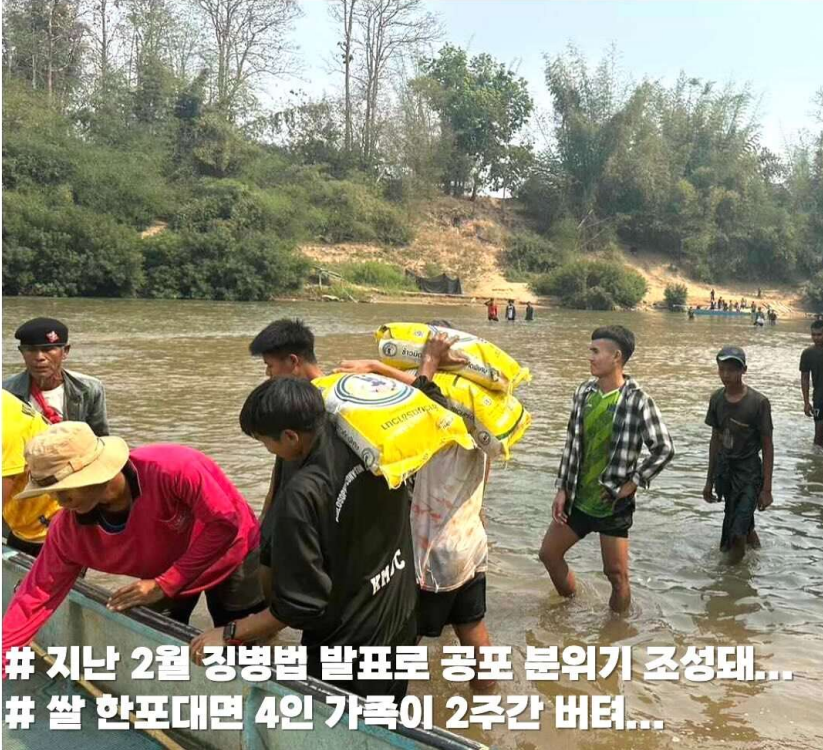
남부지방엔 벚꽃이 만개하여 일 년 중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세상과함께에도 사계절 내내 회원님의 따뜻한 마음이 벚꽃처럼 가득합니다. 이렇게 모인 마음들이 어려운 환경에 놓인 국내의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 중인 미얀마에 지원하는 쌀과 분유는 피란민들과 학생들의 삶을 이어가게 합니다. 국내 발달장애인 학교에 대한 지원 또한 학생들이 자립할 수 있는 꿈을 키워나가게 합니다.

소중한 나눔 활동 외에도 '바르게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 등 다양한 소식을 담은 3월 함께레터를 부칩니다. 늘 감사합니다.

함께레터 바로가기 : <https://stib.ee/jYiB>

미얀마 피란민 5,292명에게 쌀 950포대를 후원했습니다.



지난 2월 징병법 발표로 공포 분위기 조성돼...
쌀 한포대면 4인 가족이 2주간 버텨...

미얀마 피란민 5,292명에게 쌀 950포대를 후원했습니다.

-지난 2월 징병법 발표로 공포 분위기 조성돼...

-쌀 한포대면 4인 가족이 2주간 버텨...

현재 미얀마에는 군복무와 관련된 새로운 법이 발표되면서 전쟁의 공포가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얀마 청년들은 군사정부를 피해 태국 국경으로 피란을 가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가 청년들을 체포하면서 분위기는 더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상과함께는 지난 3월 미얀마 Brigade-4 지역 피란민 2,150명에게 쌀 400포대를 지원했고, Brigade-7 지역 피란민 3,142명에게 쌀 550포대를 지원했습니다. 이 두 지역은 국경에서 멀고 가는 길이 험해 그동안 지원을 하지 못했던 곳입니다.

Brigade-4 타보이지구-Ka Saw Wah area에 살고 있는 아이는 “폭격 때문에 집들이 불타고, 파괴되어서 우리가 매일 쓰던 물건들이 더 이상 없어요. 폭탄과 전쟁 때문에 마을에서 더 이상 못 살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걸어왔어요.”라고 상황을 알렸습니다.



Brigade-7 지역 피란민들은 대부분 폭격 때문에 피난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미얀마 군부에서 징병법 발표 이후 일부 젊은이들이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 도망쳐 왔습니다. 그래서 지낼 곳이 부족해 임시 숙소를 만들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피란민들은 반찬이 부족한 밥 위주의 식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야채를 재배해서 먹기도 하지만 영양불균형으로 인한 질병이 생기고 있습니다.

세상과함께는 쌀을 성인 1인당 5kg, 아이들 1인당 3~4kg를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2주를 지낼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쌀 한 포대를 후원하면 한 가족이 2주 정도를 지낼 수 있습니다. 피란민 가족이 한 달을 버틸 수 있도록 쌀 두 포대씩 후원 부탁드립니다.



이웃 자연과 함께 하려는 사람들의 집, 세상과함께 센터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법인 활동의 공간으로, 시민과 회원들을 위해 개방된 소통공간으로...

지난 일요일(2024.04.21) 오전 세종시 장군면 장군산 자락 아래 자연과 함께하는 공간에서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세상과함께의 센터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전날부터 내린 비가 아침까지 이어졌지만 다행히 행사 전 비가 그쳐 야외에서 바람과 주변 풍광을 무대로 행사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세상과함께에 많은 도움을 주셨던 회원, 후원자, 연대 단체 활동가뿐 아니라 어린이 회원과 반려견까지 90여분 가량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가운 인사 후 10시 30분부터 천도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센터 건축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개미 등 모든 생명체와 산천어 축제에서 희생된 생명을 위해 축원하였습니다.

천도제를 마치고 준공식 본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멋진 클래식기타 3중주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함께해



주신 한분 한분 모두 서로 인사를 나누는 후 상임이사의 건물 경과보고, 이사장 기념사, 내빈 축사가 이어졌고, 산돌학교 학생들의 흥겨운 축하공연까지 세상과 함께하려는 법인의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비 온 뒤 맑은 하늘과 초록의 산과 자연을 배경으로 야외 마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준공식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세상과함께는 센터를 더욱 활발한 법인 활동의 공간으로, 시민과 회원들을 위한 개방된 소통공간으로, 모든 이들의 마음의 평화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비록 준공식에는 참석하시지 못하셨지만 10년 동안 세상과함께의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진1. 준공식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함께 기념촬영

사진2. 축사를 해주신 시민환경연구소 윤준하이사장님(좌), 환경상 심사위원 윤상훈님(우)

사진3. 작년 환경상 시상식 때 많은 도움을 주신 실상사의 법인스님



세상과 함께 가는 집

시인 박남준

겸손하게 엮드린 집이 있습니다
이름처럼 더불어 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기 2568년 서기 2024년 4월 21일
대한민국 세종시 장군면 영평사길 112-35
하늘과 땅, 세상의 모든 신명께
집을 짓고 잔치를 열어
한마음으로 고합니다



생명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는,
평화의 마음으로 삶을 껴안고 풀어내며
세상 속으로 다가가려는 세상과 함께 사람들의 이름으로,
즐거운 마음을 내어 자리 마련했습니다

눈 들어보면 만나는 세상의 모든 것들
반갑습니다
어여쁩니다 귀 기울여 보면
힘겹지 않은 것 없습니다
고통 받고 있습니다



세상과 함께 가는 집 - 시인 박남준



이웃과 함께 나아가는 것,
세상의 모든 생명들과 함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만의 중심이 아닌
산들이 산으로, 바다가, 강물이,
저마다의 자리에 스스로 그려줬듯
제자리에 본디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가는 집 - 시인 박남준



더불어 살지 않으려는 마음이
전쟁과 고통을 세상에 만듭니다
나누지 않으려는 마음들이,
섬기지 않으려는 마음들이
세상을 병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나를 온통 내놓지 않고는 함께 할 수 없는 일
비로소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귀를 연다는 일입니다
나와 더불어 사는 생명을
아끼고 지켜준다는 것
그 세상 정말이지 살 맛 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함께 가는 집 - 시인 박남준



여기 오늘 한결같이
맑고 향기로운 이들의
마음과 인연이 모아지고 보태져서
이 자리 만들었습니다
더함도 덜함도 없이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세상에 고합니다.
사람들이 서로서로 한마음
따뜻한 사랑으로 껴안을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가는 집 - 시인 박남준



울타리 없는 공동체,
세상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은 세상입니다
내딛는 한 걸음의 발자국이 세상을 변하게 한다는 것을
그 시작이라는 것으로 믿고 또 믿습니다
더디고 더딜 것입니다
부디 첫걸음의 마음 잃지 않게 굽어 살피소서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안녕과
건강하고 평화로운 풍요를 소원해봅니다
내내 희망이 샘솟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날마다 세상과 함께가 있습니다.
세상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함께 가는 집 - 시인 박남준



사단
법인 **세상과함께**

2024/APR/26

2024년 제5회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에 지원(추천)해 주세요!

사단법인 '세상과함께'는 친환경 건축, 자원순환을 위해 1인당 6,000여원의 고액 아이디어를 내신 회원의 지원, 국내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나아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의 상이 친구의 환경 현안들을 조사하고 국민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실천가능한 대책 마련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환경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환경단체와 환경활동가, 그리고 생애주기를 위한 노력하는 개인들의 노고를 기리고자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을 마련했습니다.

이 상은 2009년 새만금 해방로에서 시범까지 65일간 322km를 삼보일배로 행진했던 대장항과 2009년, 2009년 자연산에서 인천까지 124일간 95km를 오지투지도 순례했던 청신봉 계승회, 인권중심주의에 대한 반성과 자기성찰을 통해 사랑과 평화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2020년 제정되었습니다.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은 우선 현장에서 환경과 생명, 평화를 위해 활동하고 계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성 있고 건강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장 기반 연구 지원과 교육 활동지원의 기능도 마련되어 있으니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의 공모 기간은 **2024년 4월 1일(월)부터 ~ 8월 24일(목)**입니다. 그 뒤 환경 분야 전문가 및 사회 인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와 현장 조사 등을 거쳐서 2024년 10월 7일(월)에 발표요, 10월 27일(일)에 대상 수상자의 활동 현장에서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참가기준

○ 환경성(활동 현안의 구체성) ○ 지속성(활동 기간) ○ 독립성(재정운영의 건전성) ○ 확장성(활동 영역의 사회적 파급력) ○ 대안성(여과요도 활동의 실제 성장 도모) ○ 시민성(시민참여와 소통) ○ 민주성(활동의 투명성과 연대활동) ○ 사회적(사회적 관심) 등입니다.

공모 분야는

▶ 환경성(대상 1인 또는 단체 5,000만원, 환경상 1인 또는 단체 3,000만원) ▶ 삼보일배성, 오체투지성, 사랑성, 생명성(1인 또는 단체 1,000만원) ▶ 공존성, 인본성(1인 또는 단체 1,000만원) ▶ 워라밸 니오상 (1인 또는 단체 500만원) ▶ 현장활동 및 현장연구 지원(기금/00원 또는 00개 단체 총 8,000만원)입니다. 각 분야별 수상자 소지 및 상금은 당해 연도 심사위원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 지원(추천)에 필요한 자료서양 양식은 세상과함께 홈페이지 (www.hwv.or.kr) 환경이아이-오체투지 환경상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제5회 삼보일배오체투지환경상 공모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과함께 박금화 부상임이사 오마이뉴스 인터뷰

창립10주년을 맞는 세상과함께의 센터 준공식 소식과,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주었습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과 주변에서 추천도 환영합니다.

기사 보기 : <https://omn.kr/28fwm>

인터뷰 영상 보기 : <https://youtu.be/EdgAw58yow8>

<제5회 삼보일배오체투지환경상 지원방법 및 문의사항>

1. 공모 기간 : 2024년 4월 1일 (월) ~ 2024년 8월 24일(목)

INSTABOOK

83

2024 세상과함께 온라인 바자회



전쟁 속 미얀마 YGW 학교 아이들과 피란민들에게 전액 지원합니다.

쌀 한포대 25,000원으로 1명이 한 달을 지낼 수 있습니다. 아이들 한 명, 열 명에게 쌀을 보내주세요. 이번 바자회를 통해 2,000명에게 쌀을 보내려 합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후원 계좌로 후원금을 보내주시거나, 아래 QR코드로 연결해 후원해주세요.

후원 | 농협 301-0174-7361-31(세상과함께)

바자회 물품 모집 | 2024년 4월 25일 ~ 5월 24일

일시 | 2024년 6월 1일 (토) ~ 6월 9일 (일)

온라인바자회 주소 | twm.myscho.com

★ 바자회 물품 기부 시 심의주세요.

1. 외화나 신발은 위생상의 문제로 물품에서 제외됩니다.
2. 식품은 장기 보관이 가능한 품목으로 부탁드립니다.
3. 컴퓨터와 디지털 가전 등은 작동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세요.

바자회 물품 기부하기	바자회 물품 구매하기
 <p>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물건 내 물과 자원이 건당해는 약가리가 있으면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사무국: 010-5940-6198</p>	 <p>온라인 바자회 기간 동안 방문해서 물품을 구매 바자회 주소: twm.myscho.com</p>




세상과함께

2,000명 미얀마 YGW 학교 아이들에게 쌀을 보내요!
-2024년 세상과함께 온라인 바자회를 진행합니다.

“한국의 지원 없이 버티기 힘듭니다. 비상상태가 진정될 때 까지 식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미얀마 까야 YGW 학교 교장 -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4년째, 미얀마는 아직 전쟁 중입니다. 전쟁과 가난으로 고아가 된 아이들을 보살피기 위해 스님들이 세운 YGW 학교에 피란민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스님이 전쟁지역에 달려가 아이들을 데려오기도 합니다.

세상과함께는 작년부터 4개 YGW 학교 2,000여명에게 매달 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세상과함께 온라인 바자회는 이 아이들을 위해 열립니다. 외부 후원이 끊겼지만, 2,000명의 아이들을

세상과 함께하는 편지 함께레터



▲ 세상과함께 준공식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함께 기념 촬영

세상과 함께하는 편지 4월 함께레터

창립 10주년을 맞은 뜻깊은 시기에 세상과함께 센터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법인 활동의 공간 및 시민, 회원 소통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올해도 온라인으로 바자회가 열립니다.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YGW 학교 학생들과 피란민들에게 수익금 전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5회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 공모가 진행 중입니다. 현장에서 환경과 생명, 평화를 위해 활동하시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내의 소식과 환경이야기 등을 담은 4월 함께레터를 부칩니다. 늘 감사합니다.



어린이날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아이들

어린이날, 지금 이 순간에도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미얀마 YGW 학교 아이들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학교에서 보살핌을 받는 2천 명의 아이들, 쌀 가격 폭등으로 하루 세끼 식사조차 걱정해야 하는 이 아이들에게 세상과함께는 매달 1950만 원을 지원하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내 곁의 아이들뿐 아니라 미얀마의 우리 아이들도 웃을 수 있도록 회원님의 온정 어린 마음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보기 : <https://youtu.be/0BA9wvhZmlk>



미얀마 피란민에게 힘이 되어 주세요.

- 미얀마 국경근처 3개 지역 6,745명에게 긴급 구호품 전달 -

사단
법인
세상과함께

미얀마 피란민에게 힘이 되어 주세요.

-미얀마 국경근처 3개 지역 6,745명에게 긴급 구호품 전달해...

-지속된 전쟁으로 피란민 수가 늘고 있어 지원이 더 필요...

“안녕하세요. 세상과함께에서 카렌 피란민을 지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카렌 주에 있는 피란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경 지역 상황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대피하고 있어 피란민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족한 양이지만 피란민에게 긴급 구호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절, 사랑 가득한 도움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카렌난민위원회 의장님이 편지와 함께 지원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4월에는 6,745명, 815가구 이상이 머무르는 마을에 지원을 했습니다. Brigade-4 지역(타보이, 흐띠모와, 카세도, 레르도소)에 191가구 925명, Brigade-6 지역(두플라야, 카우카릭) 624가구 2,820명, Brigade-7 지역(파안, 타네사) 3,000명에게 긴급 구호품을 전달했습니다. 쌀포대 15kg 300포대, 50kg 200포대와 생선캔 16개, 식용유



10개 등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피란민들은 미얀마 국경 근처에서 임시 체류 중입니다. 일부 지역은 전투와 공습으로 접근이 어려워 식량을 보낼 수 없습니다. 식량을 사서 감시를 피해 돌 아래에 보관하기도 합니다.

쿠테타 이후 4년째 전쟁 속에서 세상과함께의 지원은 큰 힘이 됩니다. 미얀마 피란민에게 쌀 포대를 지원해주세요.

- ▶ 미얀마 전쟁 피란민 후원하기
농협 301-0174-7361-31(사단법인 세상과함께)
- ▶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하기
<https://online.mrm.or.kr/8Cjqh1B>



<미얀마 전쟁 속, 5살 소년 큰따마옹 이야기>

이 이야기는 5살 미얀마 소년, 큰따마옹에게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쿠투데타가 일어난 지 4년째, 미얀마는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큰따마옹이 살던 산주는 내전이 치열한 지역입니다. 폭격과 장수로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피난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큰따마옹의 아버지도 폭격으로 목숨을 잃으셨고, 아이는 피난 중에 가족과 헤어져 YGW 학교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으로 부모의 고향을 잃고 YGW 학교에 맡겨진 아이들이 주로 4개 학교(경아, 사가원, 따용지, 마이리)에 2,000명이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으로 찾아오는 후원자가 거의 없어 세상과함께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 이야기를 읽기 위해 흔치않게 배시퍼를 엮었습니다.

INSTABOOK

109



아빠는 폭탄에 맞아 돌아가셨고, 엄마와도 헤어져 혼자 남은 큰따마옹은 이모와 함께 지냈습니다.

큰따마옹, 이모가 있잖아.

편이엄...

몰려...



미얀마는 4년째 전쟁 중입니다. 큰따마옹이 사는 마을에도 전쟁이 터졌습니다.

배시퍼 수필가와 후원금은 함께 YGW 학교 아이들과 피난민들의 쌀과 분유로 쓰였습니다. 배시퍼에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110

INSTA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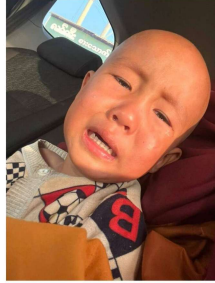


이모가 살던 마을에도 전쟁이 나서, 다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덜덜...



이모는 조카의 안전을 위해 YGW학교 스님께 아이를 맡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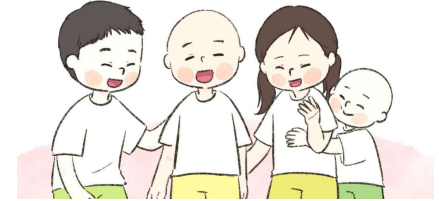
“나 안 갈거야 이모, 안 갈거야 영영...”

전쟁 속에 고립된 미얀마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쌀을 보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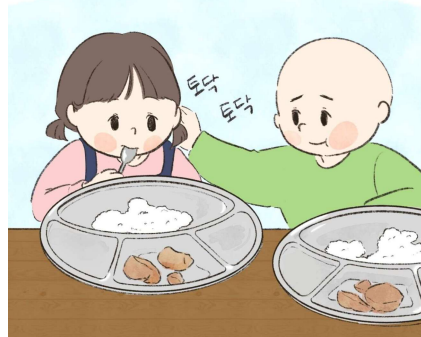
우리의 쌀포대 후원금은 아이들의 희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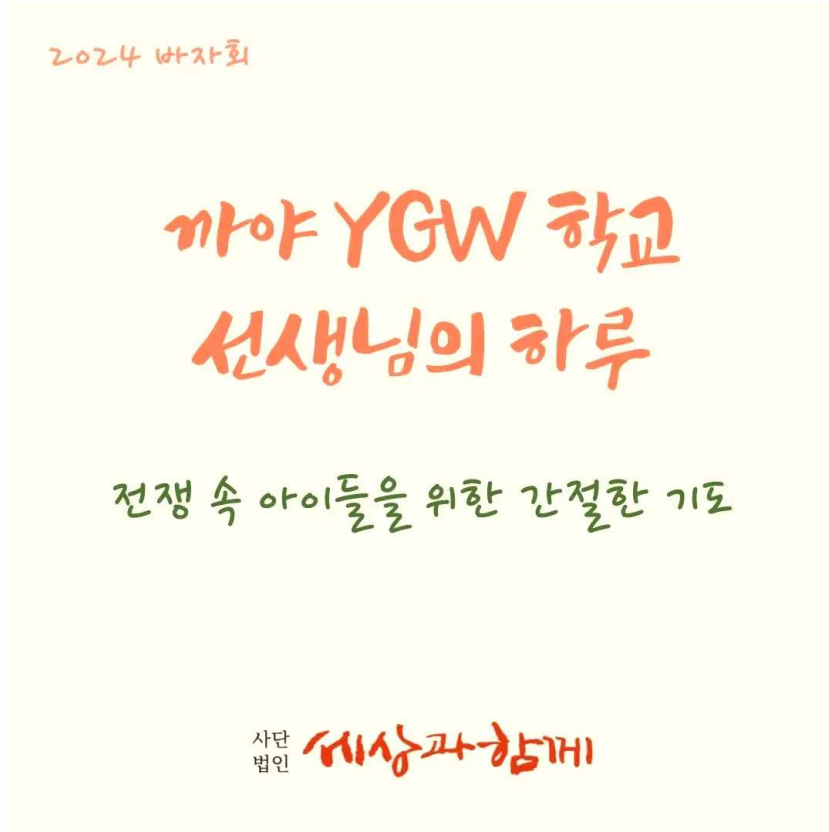


전쟁 속 미얀마 아이들과 피란민 지원을 위한
2024 세상과함께 온라인 바자회
함께 해주세요



2,000명의 아이들과 피란민은 하루하루 먹을 음식이 필요합니다.





까야 YGW 학교 선생님의 하루
-전쟁 속 아이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

함께 하실 분,
<미얀마 긴급 구호>계좌로 후원금을 보내주세요.

미얀마 긴급 구호 후원계좌
농협 301-0174-7361-31(사단법인 세상과함께)

#세상과함께 #바자회 #미얀마 #후원 #YGW

까야 YGW 학교 선생님의 하루
-전쟁 속 아이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

함께 하실 분,
<미얀마 긴급 구호>계좌로 후원금을 보내주세요.

미얀마 긴급 구호 후원계좌
농협 301-0174-7361-31(사단법인 세상과함께)

#세상과함께 #바자회 #미얀마 #후원 #YGW



미얀마에서 YGW 학교 학생들을 위한 <한글 캠프>가 열렸습니다.

- 오전엔 밉글라바 선생님과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오후에는 세상과함께 미얀마 활동가들과 복습하며 진행
- 직업을 위한 기능 교육의 목적뿐 아니라 문화를 배우고, 인식 세계를 확장하는 것이 목표
- 의식주를 뿐 아니라 교육의 끈을 이어가야 아이들에게 미래가...

5월 8일 세상과함께 미얀마 온라인방에 환하고 설레는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5월 8일부터 15일까지 네피도 YGW 학교에서 열린 <한글캠프> 풍경이었습니다. 전쟁 이후 안타까운 사진들에 익숙했던 지라, 긴 장마 후 햇빛처럼 반가웠습니다.

한글교육은 미얀마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바람이었습니다. 5년 전부터 세상과함께는 미얀마 18개 YGW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지원을 해왔습니다. 책놀이, 몸놀이, 재봉, 목공, 바느질, 보건 등 미얀마 YGW 학교 교육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며 문화예술-직업교육이 진행되었고, 작년에는 한글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2월, 24년도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YGW 학교 교장 선생님들은 한국어 교육은 언어를 배우는 것이므로 집중교육을 받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세상과함께 미얀마 활동가들이 같이 참여해 한글 선생님이 되어주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한글 캠프가 기획되었습니다.

한 학교당 2-3명이 선발되어 100명의 학생들이 네피도 학교에 모였습니다. 네피도 학생 74명, 11개 다른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 11명 총 12개 학교가 참여했습니다. 고학년과 젊은 선생님들, 20대 초반 청년들이 주가 되었습니다. 배운 후 학교로 돌아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오전에 두 시간 한국의 밉글라바 선생님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점심 식사 후 3~4시간은 미얀마 활동가들이 선생님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5월 29일부터 재봉, 미술, 보건, 책놀이 온라인 교육이 5개월간 진행됩니다. 전쟁 속에서도 배움을 놓치지

않고 있는 미얀마 아이들을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에필로그

5월 15일 캠프가 끝나고,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100명 아이들은 본인 이름이 쓰여진 수료증과 밉글라바 선생님이 보낸 모자를 수료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앞으로 나와 한국어로 인사하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일주일의 교육으로 이렇게 한국어 소통을 할 수 있구나! 학생들의 열정, 밉글라바 선생님과 미얀마 활동가들의 헌신, 네피도 학교의 보살핌이 더해진 성과였지요?

학생들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세 단어를 가장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전쟁 중인 미얀마 학생들이 이런 따뜻한 단어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가요? 한글 교육을 주관한 밉글라바 선생님들도 "학생들이 너무 고맙고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전했습니다. 세상과함께 유엔 이사장님은 "미래를 꿈꾸면, 꿈이 이뤄질 수 있다"며 온라인에서 캠프 학생들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윤경선 상임이사는 수료식을 마친 후 "100명 아이들 얼굴을 한 명 한 명 마주하면서, 미얀마에 가서 이야기 나누며 함께하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더 간절히 바라게 되었습니다. 네피도 학교를 방문해 달라고 하면서, "올 때 과자 많이 사주세요"라던 학생의 부탁을 얼른 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고 전했습니다.

<한글캠프>는 전쟁 중인 미얀마 아이들에게 꿈을 이어가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후원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미얀마 교육 프로그램 후원하기

1) 후원계좌 : 농협 301-0313-4145-41 세상과함께

2) 홈페이지를 통해서 후원하기-후원링크

<https://bit.ly/3SD41vQ>

#세상과함께 #미얀마 #교육 #한글캠프 #후원 #함께

2000명 전쟁터 아이들을 함께 지켜주세요.



2024년 세상과함께 온라인 바자회,
수익금 전액은 전쟁지역 YGW 학교 학생 식비가 됩니다!

사단
법인 **세상과함께**

2000명 전쟁터 아이들을 함께 지켜주세요.

-2024년 세상과함께 온라인 바자회, 수익금 전액은 전쟁지역 YGW 학교 학생 식비가 됩니다!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지 4년째, 2024년 5월에도 미얀마는 전쟁 중입니다. 미얀마 YGW 학교는 고아들과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맡겨져 공부하고 생활하는 귀한 공간입니다. 그 중 특히 세상과함께 후원이 절실한 4개 학교가 있습니다.

까야 YGW 학교는 전쟁터 한가운데 있습니다. 운동장에 나왔던 아이들은, 하늘에 비행기가 뜨면 폭격을 피해 교실로 대피해야 합니다. 다른 도시와 연결이 차단되어 장을 보러 먼 마을까지 길을 나선 교장 선생님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충격전에 다시 학교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사가잉 YGW 학교 주변 마을에서는 매일 전쟁이 터져 주민들이 피란을 많이 옵니다. 한 번에 200~300여명이 왔다 가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는 오는 사람 모두에게 모아둔 식량을 나누며 어떻게든



피란민과 아이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까야, 사가잉 지역에서 폭등한 물가로, 작년 25,000원 하던 쌀 한 포대는 현재 7만 원이 넘습니다. 먹여 살려야 하는 아이들은 많은데, 군부의 감시로 비싼 쌀도 한 번에 몇 포대 구하지 못합니다.

따옹지 YGW 학교 근처 마을 부모들은 공습이나 총격전에 휘말려 아이들과 영원히 이별하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전쟁고아가 된 아이들을 교장 선생님은 학교로 데려와 새 보금자리를 마련합니다.

따이지 YGW 학교로 모여있는 920여명의 아이들은 부모 품을 떠나 학교에 모였습니다. 주변에 군부대가 많아 군인들이 학교에 불시에 옵니다. 학교를 찾는 후원자는 거의 없습니다.

4개 학교 2000여명 아이들이 세상에 기댈 수 있는 곳은 YGW 학교와 세상과함께가 전부입니다.

전쟁 중에 부모의 품을 잃고 YGW 학교에 맡겨진 아이들에게 따뜻한 세상의 품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아이들의 끼니와 오늘을 지킬 수 있습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2024 세상과함께 온라인 바자회를 통해 함께 해주세요.(물품 구매, 후원으로 함께 해주세요.)

#세상과함께 #바자회 #미얀마 #후원 #YGW

세상과 함께하는 편지 **함께레터**



▲ 한국 선생님들의 수료 선물인 모자를 쓰고 <한글캠프> 수료증을 든 학생들. 미얀마 네페도 YGW 학교에서 5월 8일부터 15일까지 열린 한글캠프는 11개 학교에서 100명의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세상과 함께하는 편지 5월 함께레터>

세상과함께의 5월은 여름처럼 뜨거웠습니다. YGW와 피란민 지원을 위한 바자회를 준비하고, 환경위원회에서는 작년 한해동안 열심히 연구한 전국환경현안조사 결과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전쟁 속에서도 학생들이 네페도 학교에 100명이 모여 한글캠프를 열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어로 회원 여러분께 인사드릴 날을 기대해봅니다. 2024 바자회, 미얀마 YGW학교, 카렌 피란민,환경현안조사 보고회 소식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5월 함께레터를 부칩니다.

* 함께레터 바로가기 : <https://stib.ee/FPaC>



#세상과함께 #함께레터 #뉴스레터

우리가 함께 키우는, 2000명 전쟁터 아이들



온라인 바자회 수익금으로, 미얀마 YGW 4개 학교 아이들의 4~5개월 식량을 확보하였습니다.

사단법인 **세상과함께**

우리가 함께 키우는, 2000여명 전쟁터 아이들

-온라인 바자회 수익금으로, 미얀마 YGW 4개 학교 아이들의 4~5개월 식량을 확보하였습니다.

2024 세상과함께 온라인 바자회,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자회 기부금과 수익금으로 3800포대 정도 쌀을 살 수 있게 되었고, 전쟁 중인 미얀마 YGW 4개 학교 (까야, 사가잉, 파웅지, 따이지)의 2000여명 아이들과 피란민의 4~5개월 식량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바자회에는 특히 전국 각지 많은 분들의 정성이 함께 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기꺼이 아껴둔 물건을 내주신 분들, 4일 밤낮으로 조청을 만들어주신 분, 10년간, 2년간 아껴둔 식품을 선뜻 내주신 분들, 식품을 만들어 포장과 배달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따뜻한 마음으로 물품 구입과 후원을 하신 많은 분들...

2024/JUN/18

기부금과 물품 구입, 물품 기부로 후원해주신 350여분의 진심과 간절함을 모아 전쟁 속 외롭게 고립된 아이들에게 따스한 온기로 고스란히 전하겠습니다.

세상의 아이들을 함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과함께 #바자회 #미얀마 #후원 #기부

2024/JUN/28



우기와 전쟁속 피란민에게 힘이 되는 쌀을 후원해주세요

작년
발전
세상과함께

우기와 전쟁속 피란민에게 힘이 되는 쌀을 후원해주세요.
-총 4,585명 미얀마 전쟁 피란민에게 긴급구호품 전달해..

지난 5월에 지원했던 미얀마 피란민 지역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총 3개 피란민 지역에(총 4,585명) 긴급구호품을 전달했습니다. Brigade-4(109가구, 528명) 지역에는 15kg 쌀 100포대와 라면 10상자, 식용유 생선 등을 지원했습니다. Brigade-6(692가구, 3,677명)지역에는 15kg 쌀 400포대를 지원했습니다. Brigade-7(380명) 지역은 미얀마 군부 캠프 사이에 위치해 있어 위험한 곳입니다. 폭격을 피해 이동이 잦은 이곳 피란민들에게도 긴급지원을 하였습니다.

미얀마는 지금 우기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비가 많이 내려 도로 사정이 좋지 못하고, 해충으로 인해 전염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카렌난민위원회에서 보내온 사진에는 피란민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쌀을 지원하는 날에는 대피소가 피란민들로 가득 찹니다. 힘들 속에서도 쌀을 건네받은 아이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아이들이 웃고 지낼 수 있게 미얀마 피란민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미얀마 전쟁 피란민 후원하기

농협 301-0174-7361-31(사단법인 세상과함께)

▶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하기

<https://online.mrm.or.kr/8CjqhLB>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세상과함께 사무국(010-5940-6198)로 연락주세요.

#세상과함께 #미얀마 #전쟁 #피란민 #쌀 #긴급구조 #후원 #함께

함께레터 2024년 6월 30일 | 51호

세상과 함께하는 편지 함께레터



▲ 전쟁 속 YGW 학교 아이들의 밥 한 그릇



세상과 함께하는 편지 6월 함께레터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 덕분에 온라인 바자회 잘 마쳤습니다. 가장 어려운 미얀마 전쟁지역 4개 YGW학교 아이들의 넉 달 식비를 마련했습니다.

6월23일, 24일에는 미얀마 YGW학교 교장선생님 19분과 직접 만났습니다. 어려워진 학교 운영상황도 자세히 파악하고, 어떻게 아이들을 잘 돌보고 교육할지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아침 기도 후 매일 2천원씩 모아 분유값을 보내주신 94세 할머니 회원님, 초등생 은호와 서유의 따뜻한 기부 이야기도 편지에 동봉합니다.

장마와 무더위에 평안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미얀마 YGW학교 운영위원회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습니다.
-학교 자립과 지구를 위한 '농사' 적극 실행과 지원 논의

6월 23일 - 24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세상과함께가 개최한 'YGW학교 운영회의'가 열렸습니다. 코로나 터널을 지나자마자 닥친 내전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미얀마에서 5천 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YGW학교 운영 상황을 세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도움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세상과함께는 유연 이사장과 이사, 사무국, 활동가, (재)이다의 밍글라바 선생님 등 총 10명이 참가했습니다. YGW 학교는 17개 학교 교장선생님과 운영위원, 총 19명이 참석했습니다. 전쟁으로 급박한 상황에 있는 까야 학교 선생님을 제외한 모든 교장선생님들이 오셨습니다. 유연 이사장은 "16년부터 9년째 YGW와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미얀마 소식을 빠르게 깊이 듣고 있습니다. 현지 활동가들이 마른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미얀마 평화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전체 YGW를 대표하는 에잇싸리아(ISSARIYA) 교장 선생님은 "같이 손잡고 가면 좋겠습니다. YGW



선생님들은 지금 미얀마 정치적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상어 배속에 들어가는 물고기처럼 다른 일들에 신경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모이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고 거듭 감사를 전했습니다.

YGW 학교의 문화·창작·직업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재)이다의 김소희 대표는 "일년에 4번 스와, 사가잉에서 교육 활동을 했었는데, 아이들이 그림고 안부가 궁금합니다. 앞으로 YGW 학교 아이들이 세상 밖으로 나갈 때 많은 힘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그 과정의 고민을 교장선생님들께서 자세히 나눠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를 동안 이어진 회의를 통해 전쟁지역 학교의 운영 상황, 건물 보수와 공사 진행, 농사와 직업교육 등 각 학교의 개별적 상황을 나누며 필요한 것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식량 자급을 위한 유기농 농사의 필요에 대해 깊이 소통했습니다. 세상과함께는 학교의 식량문제 해결과 아이들 경제적 자립, 지구적 관점에서 도움이 될 농사를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학교들도 그 중요성을 모두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농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보기로 했습니다. (재)이다의 밍글라바 선생님들은 각 학교의 상황을 파악하고, 요청하고 싶은 교육이 있는지 소통했습니다.

유아들이 많은 학교는 미술과 놀이 교육을, 고등학생이나 고아 학생들이 많은 학교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술 직업 교육, 고등학교 정식인가를 받은 스와학교는 언어 교육을 요청하는 등 각 학교의 상황에 따라 집중하고 싶은 분야가 있었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은 도서관을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도 약속했습니다. 연속된 이들의 회의를 마치고 마지막 시간에는 올해 밉글라바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인 김밥을 싸보았습니다. 김밥을 직접 만들고 먹어보며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교육 프로그램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로 했습니다. 식비 지원과 시설 지원 등 전달식을 가진 후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아웅. 주주. 니제이. 보보 네 명의 현지 활동가들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전쟁지역 교장선생님들은 웃고 있는 와중에서도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전쟁이 맞아간 많은 희망들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5천 명 아이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가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요?

미얀마는 내전이 격해지고 있고, 시민들의 삶을 점점 힘들고, 올해는 대규모 격전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들과 활동가들의 고된 얼굴을 보니 전쟁의 무모함이 가슴 아팠습니다. 미얀마에 평화가 앞당겨지길. 건강하길 기원합니다. 세상과함께는 미얀마 YGW학교 5천명 아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 미얀마 YGW 학교 후원하기
 농협 301-0192-4967-71 (사단법인 세상과 함께)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세상과함께 사무국(010-5940-6198)로 연락주세요.

2024년 제 5회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



제 5회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에 지원(추천)해주세요.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width: 30px; height: 3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 0 auto;"> 일정 </div>	<p>지원(추천)서 접수기한 2024년 8월 24일 (토)까지</p> <p>결과 공지 2024년 10월 7일 (월)</p> <p>시 상 식 2024년 10월 27일 (일)</p>	
	<p>지원방법 우 편 : 세종특별시 장군면 영평사길 112-36 세상과함께</p> <p>이메일 : together@twtw.or.kr</p> <p>문 의 세상과함께 사무국장 염주실 010-5940-6198</p>	

국내 최대 규모이며,
 순수 민간 차원에서 마련된 지원금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은 모든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위해 가장 낮은 자세로 삼보일배하고 오체투지 했던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세상과함께가 2020년 제정한 환경상입니다.
 지구와 환경, 생명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와 개인을 찾고 있습니다.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을 지원(추천)해주세요.

자세히 보기 : http://www.twtw.or.kr/bbs/board.php?bo_table=notice_ochewr_id=84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에 지원(추천)해 주세요

지원(추천)서 접수 기한
2024년
8월 24일 (토) 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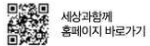
시생내역 및 분야별 대상자

시상분야	대상자	시상내역 (상액 및 상급)
대상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며 생명과 환경의 가치를 실천하여 우리 사회에 감동과 울림을 주는 개인 및 단체	5,000만원
환경상		3,000만원
삼보일배상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 헌신하는 개인이나 단체	1,000만원
오체투지상	환경오염 감시, 폐기물 관리, 환경 보건 분야에서 활동하는 개인이나 단체	1,000만원
사람상	일상 속 생활실천과 문화예술, 환경교육 등 인식 개선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1,000만원
생명상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힘쓴 개인이나 단체	1,000만원
공로상	환경과 생명보호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현재 활동여부와 무관)	1,000만원
언론상	환경 관련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룬 언론인이나 언론사	1,000만원
워리 나모상	동물 보호와 복지 증진에 헌신한 개인이나 단체	500만원
현장활동 및 현장연구 지원기금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활동과 연구를 지원 * 단년도(1년) 사업의 경우 최대 2000만원 * 다년도(2~3년) 사업의 경우 연간 1000만원씩,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가능	8,000만원

지원방법 및 문의사항

접수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우편 제출 시, 접수마감일자 소인까지 유효)
우 편 : 30054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영평사길 112-36 세상과함께
이메일 : together@tw.or.kr



세상과함께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의

이메일 : together@tw.or.kr
전 화 : 010-5940-6198 세상과함께 사무국장 영주실
자세한 내용과 제출 서류 양식은 세상과함께 홈페이지
환경이야기 - 오체투지환경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이며,
순수 민간 차원에서 마련된 지원금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은 모든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위해 가장 낮은 자세로 삼보일배하고 오체투지 했던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세상과함께가 2020년 제정한 환경상입니다.
지구와 환경, 생명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와 개인을 찾고 있습니다.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을 지원(추천)해주세요.

자세히 보기 : http://www.tw.or.kr/bbs/board.php?bo_table=notice_och&wr_id=84

**한국의 고무줄놀이,
우리도 함께 할 수 있어요!**

**2024년 문화창작 및 기술교육
온라인 1강 시작했습니다.**

사단
법인 **세상과함께**

한국의 고무줄놀이, 우리도 함께할 수 있어요!
-2024년 문화창작 및 기술교육 온라인 1강 시작했습니다.

세상과함께는 2018년부터 미얀마 YGW 학교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문화창작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미얀마 내전 이후 직접 방문이 어려워진 시기에도 아이들 꿈을 키우고 배움을 지속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6개 학교 참여로 20주 동안 매주 수요일에 화상으로 책놀이, 몸놀이, 바느질, 미술, 보건, 한글을 주제로 다양한 배움을 이어갑니다. 수업을 담당해주실 (재)이더의 밍글라바 선생님들은 세상과함께 지원을 바탕으로 수업에 필요한 동영상 수업자료와 교재, 재료를 몇 개월간 준비하여 미얀마로 보냈고, 각 학교에 무사히 전달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 진행한 한글 캠프에 이어 7월 첫 주에 책놀이와 몸놀이 교육을 시작으로 1강이 시작되었습니다. 책놀이 시간에는 '요셉의 작고 낡은 오버 코트'를 읽고, 관련하여 네임택을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은 물품을 아끼고 재활용하는 의미가 담긴 책을 읽고, 일반 단추에 조각전을 감싸서 특별한 단추를 만들고 조각전을



온라인 교육으로
선생님도 배우고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사단
법인 **세상과함께**

이용해서 네임택을 만들었습니다. 각자의 개성과 창작 솜씨를 발휘해 멋진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몸놀이는 한국 노래 '월, 화, 수, 목, 금, 토, 일'에 맞춰서 고무줄놀이를 배웠습니다. 방법을 알려주고 선생님들이 실제 고무줄놀이 시연도 하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은 고무줄놀이를 하며 친구들과 재미있게 즐기고, 건강도 챙길 수 있었습니다.

학교 밖이 전쟁 중이지만, 아이들은 안전한 학교에서 교육받고 함께 활동하며 두려움과 긴장감에서 벗어나 창의성도 키우고,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2024 문화창작 및 기술 교육이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밝혀주는 살아있는 교육이 될 것입니다.

2024년에도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응원해주세요.

문화창작교육 후원하기

세상과함께 - 물품 후원 소식 7월

나눔으로 따뜻한 식탁



<마켓레이지 헤븐>에서 7월에도 복숭아, 떡, 감자 등 다양한 먹거리를 풍성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단
법인 **세상과함께**

[국내 물품후원소식] 마켓레이지헤븐 식료품 후원



올해도 매달 꾸준히 건강한 우리 먹거리를 후원해주시는 <마켓레이지 헤븐>에서 7월에도 달콤하고 맛있는 복숭아와 무농약감자&밤호박, 유기농설기떡을 보내주셨습니다.

6월에 이어 7월에도 넉넉히 보내주신 복숭아는 산돌발달장애대안학교, 천안열린문화지역아동센터, 청소년도서관 작공, 쪽방촌도우미회,민들레국수집, 한마음사회서비스센터에 고루 보내드렸습니다.

가격 때문에 장바구니에 담지 못하던 제철과일 복숭아와 건강한 야채를 먹으며 무더운 여름을 맛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세상과함께**

[국내 물품후원소식] 마켓레이지헤븐 식료품 후원

세상과 함께하는 편지 **함께레터**



[세상과 함께하는 편지 7월 함께레터]

미얀마는 요즘 전국적으로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쿠데타 군부에 맞선 시민방위군과 소수민족군이 점령한 지역이 늘고 있지만, 전쟁은 격화되고 물가상승으로 시민들의 삶은 점점 암담해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YGW학교 아이들을 위한 24년 문화창작교육 온라인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폭염 속에서 제5회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 공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활동가분들을 둘러봐주세요.

무더위에 건강 잘 돌보시고 두루 평안하시길요.



미얀마 전쟁 피란민 4개 지역에 쌀을 전달했습니다.

사단
법인 **세상과함께**

미얀마 전쟁 피란민 4개 지역에 쌀 전달했습니다.
-홍수로 강이 범람해 아이들이 손 꼭 잡고 쌀을 운반해...

카렌난민위원회에서 미얀마 전쟁 피란민 지원에 대한 감사 인사와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미얀마는 지금 홍수로 인해 강이 범람하고, 숲길로 걸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특히 Bradgate-5 (Mu Traw)지역은 농사짓는 부모님은 고향에 남고 아이들만 피난 와서 모여 있는 곳인데, 아이들이 직접 쌀을 운반하러 나왔습니다. 강물이 불어 서로의 손을 잡고 건너갔지만 물에 빠져 쌀자루를 놓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쌀을 들고 운반하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Bradgate-6 지역에 약 380명의 피란민이 지내는 Mae Ter Kwee 마을에도 쌀을 지원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강제 징집 이후 피란은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Bradgate-6 지역 Plaw Ta Poh, PuLoo Plaw 및 Thay Baw Boe 마을에도 쌀을 지원을 했습니다.



전쟁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연일 내리는 비로 피란민들이 하루를 살아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한 소중한 쌀을 피란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한나절 걸어가거나, 숲속 깊은 곳은 코끼리로 운반하기도 합니다. 지원된 쌀은 피란민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미얀마 전쟁 피란민을 돕기 위한 쌀 후원에 동참해주세요.

- ▶ 미얀마 전쟁 피란민 후원하기
- 농협 301-0174-7361-31(사단법인 세상과함께)
- ▶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하기

<https://online.mrm.or.kr/8CjqhLB>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세상과함께 사무국(010-5940-6198)로 연락주세요.

#세상과함께 #미얀마 #전쟁 #피란민 #쌀 #후원 #릴레이 #함께



전쟁의 한복판,
미얀마 YGW 학교 아이들을 위한 식량 지원



파이찌, 따웅지, 사가잉, 까야 YGW 학교에
쌀과 식료품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단
법인 **세상과함께**

전쟁의 한복판, 미얀마 YGW 학교 아이들을 위한 식량 지원
-파이찌, 따웅지, 사가잉, 까야 YGW 학교에 쌀과 식료품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5월 말에 학교 앞을 지나가던 군부와 시민군이 마주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눈앞에서 전쟁을 목격했어요. 중심부 도로 외에 산길에는 지뢰를 심어놔서, 학생들 안전을 위해 학교 안에서만 생활하고 있어요. 지금은 외부 후원을 받을 수 없어서, 세상과함께 지원이 전부입니다.”

지난 8월 5일 미얀마 까야 YGW 학교 교장 선생님과 세상과함께 사무국에서 화상으로 현재 상황을 소통하였습니다. 다행히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미얀마는 여전히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미얀마 내전은 만달레이, 사가잉 지역 중심으로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시민방위군과 소수민족동맹군이 장악하는 지역도 늘고 있습니다. 내전 발생 지역에서는 민간인 사상자가 더 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홍수피해도 심하고, 환율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양곤에서는 주유소에 기름이 없고, 주방용 가스도



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차단한 곳도 많아서 외부와 소통이 어려운 학교도 많습니다.

사가잉 지역에서는 내전이 자주 발생합니다. 마을마다 도로에는 군인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장을 보려고 해도 상황을 먼저 면밀히 살펴야 하고, 군인들에게 모두 보고해야 이동 가능합니다.

학교 밖의 상황은 이렇지만, YGW 학교 안에서는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몇 일 안된 아기들부터 고학년 학생들까지 학교 울타리 안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고, 교육하며 함께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과함께의 식료품 후원은 지금 이 아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지원입니다.

따옹지, 따이지 YGW 학교에는 쌀 비용을 지원, 사가잉, 까야 YGW 학교에는 쌀과 식료품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까야 YGW 학교는 오직 세상과함께의 후원으로 버티고 있고, 사가잉 등 다른 학교들도 세상과함께 후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각 학교의 2000여명의 아이들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힘든 시기를 잘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쟁의 한복판의 아이들과 함께 해주세요. 세상과함께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미얀마 YGW 학교 긴급구호

1) 후원 계좌
 농협 301-0174-7361-31(사단법인 세상과함께)

2) 홈페이지를 통해서 후원하기-후원링크
<https://bit.ly/3kihJ6F>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국 (010-5940-6198)로 연락주세요.

세상과 함께하는 편지 함께레터



· 사가잉 YGW 학교 학생들이 식사하고 있는 모습
(세상과함께 홈페이지 바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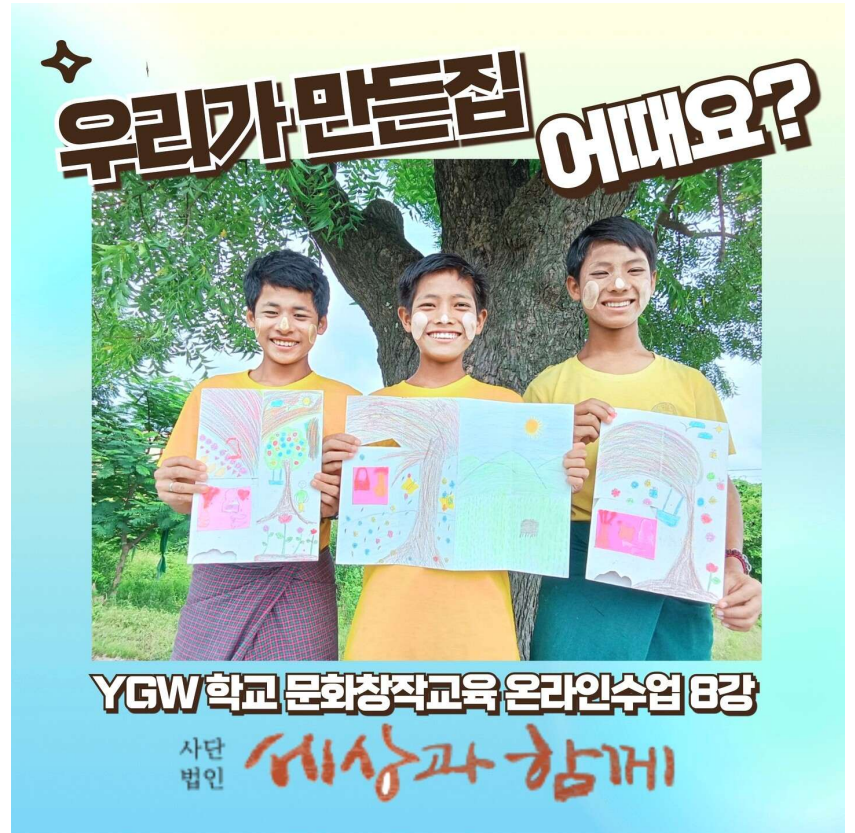
8월 함께레터

기록적인 더위와 열대야로 힘들었던 여름 끝 무렵, 밤으로는 선선한 기운이 찾아옵니다.

일상화되는 기후 재난 시대 속에서 제5회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 공모가 마감되었습니다. 9월에는 올해 수상자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회원님 덕분에 미얀마 전쟁 피해가 큰 4개 YGW학교 아이들과 소수민족 피란민을 위한 쌀과 식료품 지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달마사와 보현사, 90대 노부부, 결혼과 새치구입 기념 기부 소식까지 다양한 소식을 담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집 어때요?

-YGW 학교 문화창작교육-온라인수업 8강-

세상과함께 YGW문화창작교육-온라인수업은 미얀마의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쿠데타 이후 사회가 안정되지 않아 늘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 있습니다. 아이들은 전쟁으로 쉽게 밖에 나갈 수 없고 공교육을 잘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YGW문화창작교육-온라인 수업은 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바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 문화에 대해 배웁니다. 놀이 문화가 부족한 미얀마의 아이들에게 다양한 창작활동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YGW문화창작교육은 매주 수요일 온라인으로 한국의 이다, 밍글라바 선생님들이 미얀마 YGW 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미술, 바느질, 책놀이, 몸놀이, 보건 수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16개 YGW 학교가 참여하고 20주 동안 진행합니다. 7월 3일 24년도 1강을 시작으로 8월 22일까지 24년도 8강까지 총 8강좌를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통해 아이들은 학교 안에서 문화적인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미술도 배우고, 바느질도 하고, 친구들과 한국의 전통 놀이도 배우면서 생활해 갑니다. 매주 한국어도 한 문장씩 배우는데 이런 수업이 없다면 YGW학교에서 정규 교과목 외에 다른 교과목을 접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8월 4 주차 문화창작교육 온라인수업 8강에서는 책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 집"을 읽고 종이로 집 만들어 보기를 하였습니다. 세상에는 아주 다양한 종류의 존재들이 있고 모두 각자 다른 장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집이 필요합니다. 해당 책은 풀린 페이지를 특징으로 숲속 곳곳의 집들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세상 다양한 동물들이 살아가는 집에 대해, 세계 여러 나라의 집들을 함께 알아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집에 대해 생각해 보고 함께 종이로 집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얀마는 현재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미얀마의 아이들에겐 안전한 장소와 학교가 부족합니다. 미얀마의 아이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배움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문화창작교육 후원 계좌 : 농협 301-0313-4145-41(세상과함께)

홈페이지에서 후원하기 : <https://bit.ly/3klPXWY>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국으로 문자나 전화 주세요. 010-5940-6198

미얀마 까야에서 전해온 감사 편지



미얀마 까야에서 전해온 감사 편지

미얀마 YGW 학교 긴급구호 후원 계좌

1) 후원 계좌
농협 301-0174-7361-31(사단법인 세상과함께)

2) 홈페이지를 통해서 후원하기-후원링크
<https://bit.ly/3kihJ6F>

세상과함께 정기 후원 함께하기!
링크: <https://online.mrm.or.kr/Wu2d66X>
정기 후원이 되어, 세상의 힘이 되어주세요!

미얀마 까야에서 온 감사의 편지

"까야 학교 근처는
아직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민 1/4 정도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거리에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도로마다 출입 보안 게이트가 설치되어
이동이 어렵고,
후원자들도 학교에 오지 못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국
(010-5940-6198)로 연락주세요.

#세상과함께 #미얀마 #후원 #YGW #기부

"8월에도 식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장을 보러 이동하기 어렵다보니,
 라면 등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식용품을 먼저
 구입하고 고기반찬은 자주 해주지 못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식비를 더 보내주신 덕분에
 이삼일에 한 번 정도는 아이들에게
 고기를 먹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아주 행복하다고 합니다."

사단
법인 **세상과함께**



[2024 기후정의 현장프로1] 에메랄드빛 제주 바다 아름답다고? 위험신호다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윤상훈 전문위원 인터뷰

파란 물로 찰랑이는 바다를 보며 메마른 하얀 사막을 떠올릴 수 있을까? 상상이 아니다. 요즘 제주 바다는 디스토피아 영화를 방불케 한다. 바닷속 사막을 목격하고 제주로 이주해 바다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 7월 제주도 한 카페에서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의 윤상훈 전문위원을 만났다.

자세한 내용 보기 링크: <https://omn.kr/2a2uh>

○ 공동기획 : (사)세상과함께/익천문화재단 길동무

#세상과함께 #파란 #윤상훈



[2024 기후정의 현장르포2] 이름도 없는 갯벌이었는데...너무 아름다워서 유명해진 곳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오동필 공동단장

'수라갯벌 친구들'이 서울행정법원에 모였다. 지난 8월 22일 있었던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5차 재판 방청에 앞서, 새만금 사업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원형 갯벌 '수라'의 자리에 신공항이 들어서지 말아야 할 이유를 나누기 위해서였다.

인근에 있는 군산공항도 수요가 없어 매년 적자를 내는 가운데, 신공항은 군산에 기지를 둔 미 공군의 제2활주도로 쓰이기가 더 쉽고, 공항으로서의 전망은 불분명하다. 또한 물새들의 번식지이자 이동 경로와 겹치는 수라갯벌에서는 항공기와 조류가 충돌할 위험도 크다. 그 무수한 생명의 집터를 밀어내서도 안 된다.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의 오동필 공동단장도 목소리를 보냈다.



수원에서 미얀마까지 전해지는 마음

-세상과함께 2024 북키즈콘을 가다-

2024년9월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북키즈콘에서 미얀마 YGW학교 영유아들을 위한 분유 후원 모금 행사가 있었습니다. 북키즈콘은 국내 최초 키즈콘텐츠 복합 행사로 세상과함께도 초대 받았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아이가 아는 것일까요? 이날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분유 후원에 큰 관심을 보였고, 후원으로 이어졌습니다. 미얀마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분유 한 통 (11,000원) 후원하기

■ 농협 301-0192-4967-71 (사단법인 세상과 함께)



■ 홈페이지에서 후원하기 : <https://bit.ly/3y7SGcB>

세상과함께 정기 후원 함께하기!

링크 : <https://online.mrm.or.kr/Wu2d66X>

정기 후원회원이 되어, 세상의 힘이 되어주세요!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국으로 문자나 전화 주세요.(010-5940-6198)

#세상과함께 #북키즈콘 #분유후원모금





[미얀마 카렌 피란민과 함께] 미얀마 피란민과 추석을 함께 보내요

미얀마 피란민과 추석을 함께 보내요

세상과함께 어린이 회원들의 귀여운 쌀한포대 썰린지입니다.

따뜻함을 나누는 추석이 되면 좋겠어요.

미얀마 카렌 피란민에게 생명의 쌀 1,000포대로 희망을 전달해요

#세상과함께 #미얀마피란민 #추석기부



추석, 미얀마 피란민과 함께!

밥한공기

미얀마 피란민 친구들과 함께 먹어요.

쌀 1,000포대 모으기!!!

함께 해요 ♡

미얀마 카렌 피란민에게 생명의 쌀 1,000포대로 희망을 전해요

미얀마 전쟁 피란민 후원하기

농협 301-0174-7361-31(사단법인 세상과함께)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하기



제목 : 따뜻함을 나누는 추석

'밥은 먹었어?'

안담함 속에서 고립되어 있을 때

안부를 묻는 목소리에 힘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진과 공습을 피해 산속에 숨어있는 카렌족 피란민들에게 홍수가 닥쳤습니다. 말라리아도 유행합니다.

산 속으로 매달 세상과함께가 보내는 쌀포대는 긴급 생존 물품이지만, "살아있어 달라", "당신을 잊지 않고 있다"는 연대의 목소리가 되줄 것입니다.

자연이 가장 넉넉함을 안겨주는 추석입니다.

세상과함께와 연결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인 미얀마 피란민들에게 밥 한끼 대접하는 마음으로 쌀



[추석인사] 따뜻함을 나누는 추석2

세상과함께 김도형 어린이 회원의 귀여운 쌀한포대 챌린지 영상입니다.

평화롭고 넉넉한 추석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 미얀마 전쟁 피란민 후원하기

농협 301-0174-7361-31(사단법인 세상과함께)

▶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하기

<https://online.mrm.or.kr/8CjqhLB>

▶ 세상과함께 정기 후원 함께하기

<https://online.mrm.or.kr/Wu2d66X>



[2024 기후정의 현장르포3] 사람들이 돌아왔다... '시궁창' 강물에서 일어난 반전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여기가 팔현습지입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다리 너머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는 고무장화를 신고, 카메라를 멘 채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금호강과 산을 가리키며 그동안 목격한 야생동물들을 일러준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수리부엉이가 사는 곳, 수달이 지나간 흔적이 남아 있었다. 여러 갈래로 자란 커다란 왕버들이 줄지어 섰다. 나무에 딱따구리들이 사는 구멍도 보였고 말조개의 껍데기가 풀숲에 놓여 있었다.


제5회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

삼보일배오체투지 함께하기에 초대합니다

일상의 번거로움을 잠시 내려놓고
대지와 하나 되어
내면의 평화를 찾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길
위에서
사람
생명
평화

시 간 : 2024. 10. 27(일) 10:00 ~ 12:00
장 소 : 세종시 장군산 자락
모이는 곳 : 세상과함께 센터 (세종시 장군면 영평사길 112-36)
신청·문의 : QR 신청·문자 010-5940-6198(세상과함께 사무국)

 10월 27일 삼보일배오체투지 함께하기 이후 2시 30분부터 환경상 시상식이 진행됩니다.

시민
반인
세상과함께

'함께하는 삼보일배오체투지'에 초대합니다.

파괴되는 깃벌과 강, 생명들을 두고 볼수 없던 성직자들과 시민들은 2003년 삼보일배, 2008, 2009년 오체투지 순례길을 나섰습니다.

낮고, 느리게...

나를 바로 세우고...

고통받는 존재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며...

생명과 평화의 길을 어떻게 가야하는지 몸소 보여준 여정이었습니다.

자신을 겸허히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속 500미터의 길_위에서 함께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이 땅의 품에 안기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온 숨을 땅에 바치고,
땅이 베풀어 주는 기운으로만 기어서 가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오체투지'가

온전히 생명과 평화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수경, 2008년 9월 '오체투지의 길을 떠나며' 에서

삼보일배오체투지 함께하기는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당신과 손잡고 이 길 위에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시는 길>

버스 : 세종고속시의버스터미널 하차 후 택시 탑승(12분소요)
기차 : 오송역 7번출구 BRT 정류장에서 B1, B2, B3, B6 탑승(30분)
->한솔동 정류장에서 하차 후 택시 탑승(10분)

세상
만인
세상과함께

<참가신청>

문의 : 세상과함께 사무국 010-5940-6198

신청 : 큐알 또는 문자

신청서 링크 : <https://lr.kr/ltyd>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 #세상과함께

2024년 제5회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 수상자 발표

- 대상 [5000만원]
보철거를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 삼보일배상 [1000만원]
삼척석탄화력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
- 오체투지상 [1000만원]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
국민행동
- 생명상 [1000만원]
제주돌고래 서포터즈,
제주돌고래 긴급구조단
- 공로상 [1000만원]
(故) 장이정수
- 환경 현장활동 및
현장연구 지원기금
우이령사람들[2000만원]
작은것이아름답다[총3000만원(3년)]
제주환경운동연합[2000만원]
- 사람상 [1000만원]
이인식
- 언론상 [1000만원]
남태제
- 워리나모상 [500만원]
새벽이생추어리

세상
만인
세상과함께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 운영위원회

2024년 제5회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 수상자발표

#삼보일배오체투지환경상 #세상과함께 #수상자발표



[2024 기후정의 현장르포4] 지금도 소름... 설악산에 밤새 머문 그가 목격한 것

설악산국립공원지킴이국민행동 공동대표 박그림 인터뷰

이 기사는 세상과함께와 익천문화재단 길동무 공동 기획으로 진행되는 2024 기후정의 현장르포 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링크:<https://omn.kr/2a8vg>

#세상과함께 #기후정의현장르포 #설악산



2024 기후정의 현장르포5]뉘싯줄 휘감긴 아기 돌고래의 몸부림... 그들이 나섰다

해양다큐멘터리 팀 돌핀맨 이정준 감독 인터뷰

이정준 감독이 작년 11월부터 지켜본 돌고래가 있다. 제주 구좌읍 종달리에서 처음 발견해 이름을 '종달'이라 지었다. 종달이는 아직 젖먹이인 어린 돌고래인데, 발견 당시 부리에서 몸통을 지나 꼬리에까지 감겨있는 뉘싯줄과 뉘싯바늘 때문에 몸을 똑바로 펴지 못한 채 힘겹게 헤엄치고 있었다.

그가 10년 넘게 돌고래를 기록하면서 그런 케이스를 처음 본 건 아니었다. 뉘싯줄이나 뉘싯바늘이 몸에 걸린 어린 돌고래들이 매년 관찰되었고, 대부분 1년을 넘기지 못한 채 사라져갔다. 그런 상황을 더는 지켜보기 힘들었기에, 종달이를 발견한 그 날 바로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와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MARC)에 연락했다.

세상과함께- 물품 후원 소식

8월

9월

나눔으로 따뜻한 식탁



<마켓레이지 헤븐>에서 8월,9월에도
맛있고 건강한 먹거리를 풍성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단
법인 **세상과함께**

[국내-물품후원소식] 마켓레이지헤븐-식료품후원-8월과 9월

매달 건강한 우리 먹거리를 후원해주시는
<마켓레이지 헤븐>에서 8월에는
싱싱하고 맛있는 복숭아 120kg과 배,
썩절편과 썩설기, 쌀가루를 후원해주셨습니다.
9월에도 복숭아와 고구마를 후원해주셨습니다.

두 달 동안 보내주신 많은 양의 복숭아는
산돌발달장애대안학교, 쪽방촌도우미회
천안열린문화지역아동센터, 청소년도서관 작공,
민들레국수집, 한마음사회서비스센터에
고루 보내드렸습니다.

무더운 여름 내내 복숭아를 후원해주셔서
모든 지원처에서 달콤하고 풍성한 여름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단
법인 **세상과함께**

[국내-물품후원소식] 마켓레이지헤븐-식료품후원-8월과 9월

건강하게 느끼게 마켓레이지헤븐

Market Lazy Heaven_은



고창으로 귀농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좋은 품질의 건강한 농산물을 직접 찾아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온라인 파머스 마켓이다. 계절의 가치를 담아 건강한 식문화를 제안해 오고 있다. 상품을 발송할 때는 생산지, 만드는 과정, 먹는 법 등을 담은 설명서를 동봉한다. 시그니처 상품으로 들깨떡이 있다.

2021년부터 각종 유기농 떡, 제철과일, 다양한 식재료를 세상과함께에 후원해오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세상과함께**

[국내-물품후원소식] 마켓레이지헤븐-식료품후원-8월과 9월

군산시 한마음사회서비스센터

한마음사회서비스센터_는



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재가요양, 노인돌봄, 가사간병 등을 하고 있다. 독거어르신 60여명, 저소득층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등 50가구를 돌보고 있다.

사단법인 **세상과함께**

[국내-물품후원소식] 마켓레이지헤븐-식료품후원-8월과 9월

세상과 함께하는 편지 **함께레터**

2024년 제5회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 수상자 발표

9월 함께레터

올여름은 일상에서 기후위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환경을 지키는 일은 모두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최전선에서 헌신해 온 제 5회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 수상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축하해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추석 연휴에 전쟁과 홍수로 고통받는 미얀마 피란민들에게 보낼 쌀을 모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자연과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고, 온기를 나누었던 9월의 편지를 부칩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폭우로 넘친 강을 건너 쌀을 운반하고 있는 미얀마 전쟁 피란민

지속되는 전쟁으로 고통 받는
미얀마 피란민 인터뷰

사단법인 **세상과함께**

[미얀마 전쟁 피란민과 함께] 지속되는 전쟁으로 고통 받는 미얀마 피란민 인터뷰

지속되는 전쟁으로 고통 받는 미얀마 피란민 인터뷰

-가장 필요한 것은 아이들이 먹을 쌀...

-따뜻한 나눔의 추석 쌀 841포대 모여, 10월에 전달 예정...

따뜻한 나눔의 추석 쌀 1천포대 모오기에 소중한 후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쌀 841포대가 모여 10월에 카렌 피란민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쟁 속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미얀마 카렌 피란민에게 소중하게 지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얀마 상황 및 인터뷰



미얀마 내전 4년째, 전쟁이 장기화되며 수세에 몰린 군부는 청년들을 전쟁터로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미얀마 전국이 전쟁의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속에서 청년들은 부모의 품을 떠나 황급히 국경지대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전쟁을 피해 도망친 이 지역에도 폭격이 덮치고 있습니다. 빈 손으로 고향을 떠난 피란민들에게는 배고픔도 두렵습니다.

세상과함께는 지난 9월에도 태국-미얀마 국경의 대피지역에 숨어지내는 피란민들에게 쌀을 위주로 긴급구호품을 전달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피란민으로 인해 늘 구호품이 부족합니다. 9월에도 쏟아진 폭우로 인해 길이 끊겨서 구호품 운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와중에 두플라야(Dooplaya), 와레이(Waray), 아난퀸(Anan Kween), 매테퀴(Mae Ter Kwee) 세 지역을 지원했습니다. 다른 한 지역에도 길이 복구 되는대로 구호품을 전달할 것입니다.

에야웨디 지역 웨터 마을에서 온 나 그리타르(Naw Greetar)는 17살 소녀입니다. 내전이 장기화되고

격해지며 군부 징집을 피해 남동생과 함께 국경지역으로 도망쳐서 정글에 숨어지내고 있습니다.

“밤 12시가 되면 체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전한 장소에 숨어 지내고 있어요. 여기에서 하루에 두 번 쌀을 배급받아요. 그러면 산에서 장작을 가져오고, 빗물을 받아 밥을 해먹고 있어요.”

응웨이사웅(Ngwesaung) 마을에서 온 쏘에이테인(Saw Aye Thein)

“우리 가족은 5명입니다. 황급히 피난을 와서 대나무 움막을 지어 지내고 있습니다. 산속에 모기가 많아서 너무 힘이 듭니다. 일주일에 쌀 15kg씩 배급받아서, 하루에 한 두 번 밥을 해먹고 있어서, 아이들을 먹일 음식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쏘탄에(Saw Than Aye)

“아이들이 200명 가량 모여 지내는 이곳에는 의약품과 음식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매일 밤 도는 순찰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얀마 피란민의 삶은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세상과함께의 연대는 피란민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미얀마 전쟁 피란민 후원하기

농협 301-0174-7361-31(사단법인 세상과함께)

▶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하기

<https://online.mrm.or.kr/8CjqhLB>

▶ 세상과함께 정기 후원 함께하기

<https://online.mrm.or.kr/Wu2d66X>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세상과함께 사무국(010-5940-6198)로 연락주세요.

#세상과함께 #미얀마피란민 #긴급구호



미얀마 YGW 학교 자급자족 프로젝트, 우리들의 농업!



직접 지은 벼농사, 수확을 기다립니다.



사단
법인 **세상과함께**



미얀마 YGW 학교 자급자족 프로젝트, 우리들의 농업!

-직접 지은 벼농사, 수확을 기다립니다.

전쟁 중인 미얀마에 고아들이나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맡겨져 함께 생활하는 YGW 학교, 아이들의 식량 지원은 꼭 필요하면서도 외부 후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상과함께는 미얀마 YGW 학교의 장기적인 자급자족 식량 확보를 위하여, 2023년 친환경 농법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제 교육 이후 1년 동안 농업을 장려한 결과, 현재는 9개 YGW 학교에서 각 학교 상황에 맞게 텃밭 재배부터 시작하였고, 2개 학교에서는 벼농사도 시작하였습니다.

며수 YGW 학교는 넓은 평수에 로제, 호박, 가지 등 야채를 심었고, 후원자도 없고 어렵지만 그래도 야채 요리를 해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까야 YGW 학교 고학년 아이들은 야채 재배를 좋아해서 농업 기술을 익혀, 이제는 선생님들이 크게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사가잉 YGW 학교도 9월 벼 심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문묘 YGW 학교 농업 모습



사단
법인 **세상과함께**



문묘 YGW 학교는 벼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기 때 벼농사를 하고, 여름에는 콩을 재배했습니다. 귀한 쌀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게 되면, 아이들 식량 문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밭이 넓어서 앞으로는 우기에는 벼, 여름에는 콩, 옥수수, 깨, 야채 등을 재배하게 되면, 자급자족할 수 있는 부분이 큼니다. 세상과함께에서 농사에 필요한 물품을 후원할 예정입니다.

그 외 학교에서도 각 학교 밭과 기후 환경에 맞춰서 모닝글로리, 고추, 로제, 옥수수, 과일나무 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세상과함께는 앞으로 자체적인 농업을 더 장려하고 관련된 교육과 물품 후원을 통해 각 학교의 자력갱생을 도울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농법으로 환경도 보호하고, 학생들이 농업 기술을 익히면서 수확하는 기쁨도 함께하고, 식자재를 자급자족하여 식비도 줄이는 효과를 더 넓히길 기대합니다.

미얀마 YGW 학교의 자급자족 프로젝트, 친환경 농법 지원에 후원과 응원으로 함께 해주세요. 후원금은 친환경 농법 교육과 농사에 필요한 물품 지원에 쓰입니다.



까야 YGW 학교 농업 모습



사단법인 **세상과함께**



미얀마 YGW 학교 친환경 농법 지원

- 1) 미얀마 YGW 학교 친환경 농법 교육 지원
농협 301-0313-4138-11(사단법인 세상과함께)
- 2) 홈페이지를 통해서 후원하기-후원링크
<https://bit.ly/3kihJ6F>

세상과함께 정기 후원 함께하기!

링크: <https://online.mrm.or.kr/Wu2d66X>
정기 후원회원이 되어, 세상의 힘이 되어주세요!

초대합니다

‘너는 나의 뿌리며, 나 또한 너의 뿌리’
나부터 성장하는 자세로
함께하는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기록

위의 삼보일배 · 오채투지

(사)세상과함께
영구담



장소 : 세종시 영평사 삼명선원
일시 : 2024.10.26(토) 18:30~20:00

길_위의 삼보일배 오채투지 출판기념회에 초대합니다.

(사)세상과함께 서록발간위원회에서 4년의 준비 과정을 거친 『길_위의 삼보일배』와 『길_위의 오채투지』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삼보일배와 2008,2009년 오채투지의 고귀한 정신을 알리고, 그 의미를 확장하는 노력을 지속해 가려고 합니다.

기후위기와 인간성이 상실되는 시대, 그 해결책을 찾아나선 길에서 만나게 된 사람, 생명, 평화의 정신을 같이 공유하길 기대합니다.

가을밤, 책의 의미를 같이 느껴보고 마음의 작은 울림 하나 나누어 가시길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 : 세상과함께 사무국 010-5940-6198

여러 해에 걸친 삼보일배와 오체투지에 대한 조사와 기획을 바탕으로, 이번에 두 권의 책을 서록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성직자 분들, 그리고 함께 한 수많은 시민들의 행동이 있었기에 이렇게 소중한 책을 낼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을날 출판기념회에서 좋은 시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일정안내>

날짜 : 2024.10.26(토) 오후 6시 30분

장소 : 세종시 영평사 삼명선원(세종시 장군면 영평사길 124)

문의 : 010-5940-6198(세상과함께 사무국)

홈페이지 : www.twtw.or.kr

<오시는 길>

버스 :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 하차 후 택시 탑승(12분소요)

기차 : 오소여 7버츄그 RPT 저르자에서 R1 R2 R3 R6 타스(20분)

#길위의삼보일배오체투지 #삼보일배오체투지 #세상과함께



[2024 기후정의 현장르포] 26년째 한국살이...새를 사랑한 영국인 박사가 한국 법정에서 겪은 일 '새와 생명의 터' 대표 나일 무어스 박사 인터뷰

나일 무어스 박사는 동아시아 철새와 습지 보호 운동가다. 한국 습지연대에서 나일 무어스 박사에게 한국에 와줄 것을 요청했을 때, 그는 일본에서 환경설계 공부를 마친 상태였고 습지에 대해서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있었다. 일본에서 80헥타르의 작은 지역조차 습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10만 명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을 때, 4만 헥타르라는 어마어마한 넓이의 새만금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는 1998년 한국으로 이주했다. 1999년 3월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람사르 회의에서 한국, 북한, 일본 전문가들의 요청으로 설명을 하다가 '엄청난 인종차별을 못 견디고 이해할 수 없어서 남의 나라에 왔는데 내가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내가 속한 영국이라는 국가가 저지른 폭력에 대해서 내 활동으로 회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깨달음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의 갯벌은 지구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멸종 위기 철새의 중요 기착지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어 2021년 7월 31일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충남 서천 갯벌, 전북 고창 갯벌, 전남 신안 갯벌, 전남 보성-순천 갯벌이 등재되어 있다. 한국 정부가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때 내세웠던 것이 도요새였다.

"도요새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새만금 갯벌에 신공항이 들어서는데 국토부가 낸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는 도요새가 언급되지 않았어요. 원주민인 새에게 소음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아예 연구하지 않았고 언급조차도 없었어요. 제가 법정에서 이 이야기를 하니깐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이 기사는 세상과함께와 익전문화재단 길동무 공동 기획으로 진행되는 2024 기후정의 현장르포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링크 <https://omn.kr/2aeue>

#세상과함께 #현장르포 #나일무어스박사



수덕사 & 보현정사를 따뜻하게 메운 쌀 1포대 & 분유 1통 릴레이 후원

사단
법인 **세상과함께**

[모금행사] 수덕사와 보현정사를 따뜻하게 메운 쌀1포대& 분유1통 릴레이 후원

세상과함께는 지난 10월 4일과 5일. 수덕사와 문경 보현정사에서 <분유 1통, 쌀 1포대 릴레이> 후원금 모금행사를 가졌습니다.

수덕사에서는 불교박물관 근역성보관 신축 개관 1주년을 기념하는 산사음악회, 그리고 보현정사에서는 <기후변화대응 전통음식문화 축제>가 열렸습니다.

가을로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두 사찰에는 노래와 연주 그리고 넉넉한 인심을 담은 전통음식을 만나려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쟁 속에 미안마 아이들을 위해 쌀 1포대, 분유 1통을 후원하는 따뜻한 마음을 모금함에 담아주셨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와서 모금해주신 분, 먼 걸음을 되돌아 와서 모금해주신 분, 지갑을 가지러 먼 걸음을 마다않고 다녀와주신 분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정성이 모여서 300여통의 분유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모금행사] 수덕사와 보현정사를 따뜻하게 메운 쌀1포대& 분유1통 릴레이 후원



시작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답게 일할 수 있는 일터, 그리고 세상과 소통하는 '그랑'



"시작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답게 일할 수 있는 일터, 그리고 세상과 소통하는 '그랑'

발달장애 청년 17명에게 일터가 생겼습니다.

갈 곳, 할 일, 만날 사람이 있는 제자들의 삶을 위해 군산 산돌학교 선생님들이 몸과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시작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발달장애 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어떻게 지낼까요? 자립 생활이 안되는 중증 발달장애 학생들은요?

17년 전 산돌학교에 입학한 진섭씨는 올해 34살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뇨와 고지혈증, 하지골절 후유증인 보행 장애와 뇌전증을 앓고 있어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하면 실신을 합니다.

줄 서서 기다리기, 편식하지 않고 반찬 골고루 먹기, 불편할 때 화내지 않고 부탁하기 등... 진섭씨는 산돌학교에서 일상 활동을 익혔고,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개별 맞춤 수업을 통해 노래에



재능이 있는 것을 발견해, 산돌학교 발달장애 예술단인 '그랑'의 공연 때는 연미복을 입고 무대에 올라 독창을 합니다. 진섭씨의 노래는 청중들에게 감동을 주고, 화답하는 박수갈채는 진섭씨와 가족들에게 삶의 연료가 돼줍니다.

산돌학교가 장애인 교육에 있어 학령기 이후의 공백을 메우는 새로운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령기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청년들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과 가족들의 어려움을 직접 목격하며, '장애인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돌학교는 '사각시간 돌봄' 서비스를 통해 주말에도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24시간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장애인 교육이 단순히 지식 전달을 넘어 전인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산돌학교의 사례는 장애인 교육과 돌봄에 있어 학교의 역할 확대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돌학교 첫 입학생들이 졸업을 했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아이들은 고립되고 퇴행하게 됩니다. 돌봄을 오롯이 떠맡게 된 부모님은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아이들의 그림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막고 싶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직업교육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 산돌학교 홍진용 교장선생님 인터뷰에서)

세상과함께는 2018년 산돌학교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섬세한 돌봄을 수반한 전문적인 자립 교육이 진섭씨를 비롯한 발달장애 학생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성장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세상과함께는 한명이라도 더, 발달장애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산돌학교의 사각시간 돌봄, 발달장애인 예술단 '그랑'과 발달장애 청년들이 직업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 <https://bit.ly/4dGVtn>

○ 발달장애청년(산돌학교) 후원계좌: 우체국 107342-01-001212 (세상과함께)

○ 홈페이지 후원 : (링크) <https://bit.ly/3lwPIHS>

○ 세상과함께 정기 후원 함께하기!



링크: <https://online.mrm.or.kr/Wu2d66X>
 정기 후원회원이 되어, 세상의 힘이 되어주세요!

○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세상과함께 사무국 (010-5940-6198)으로 연락주세요.

2024년 제 5회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 시상식이 열립니다!



2024년 제 5회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 시상식이 열립니다!

전체 내용 링크: http://twtw.o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687

#세상과함께 #삼보일배오체투지환경상 #시상식



환경상 시상식 일정

일시 2024년 10월 27일 일요일

장소 세종 특별 자치시 장군면 영평사길 112-36
세상과함께 센터

1부 삼보일배오체투지 함께하기 - 오전10시

2부 환경상 시상식 - 오후 2시30분



2024년 제 5회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 시상식이 열립니다!

전체 내용 링크: http://twtw.o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687

#세상과함께 #삼보일배오체투지환경상 #시상식



대상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



2024년 제 5회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 시상식이 열립니다!

전체 내용 링크: http://twtw.o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687

#세상과함께 #삼보일배오체투지환경상 #시상식



삼보일배상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2024년 제 5회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 시상식이 열립니다!

전체 내용 링크: http://twtw.o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687

#세상과함께 #삼보일배오체투지환경상 #시상식



오체투지상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2024년 제 5회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 시상식이 열립니다!

전체 내용 링크: http://twtw.o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687

#세상과함께 #삼보일배오체투지환경상 #시상식

2024/OCT/15



사람상

이인식



2024년 제 5회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 시상식이 열립니다!

전체 내용 링크: http://twtw.o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687

#세상과함께 #삼보일배오체투지환경상 #시상식

2024/OCT/15



생명상

제주돌고래긴급구조단



2024년 제 5회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 시상식이 열립니다!

전체 내용 링크: http://twtw.o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687

#세상과함께 #삼보일배오체투지환경상 #시상식



[2024 기후정의 현장르포]쓰레기 냉장고에 새끼 닭 3마리가... 그곳에서 벌어진 비극

장항습지 유실 지뢰 폭파 피해자 시민운동가 김철기

그가 잠에서 깬다. 오른쪽 무릎 아래가 허전하다. 3년 전, 지뢰 사고로 한 쪽 다리를 잃은 그는 한동안 악몽에 시달렸다. 말이 통하지 않는 낯선 세계에 홀로 뚝 떨어진 꿈이었다. '왜 하필 나였을까?' 답 없는 질문에 좌절했던 시간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무던히 재활의 시간을 버텼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나쁜 꿈을 꾸지 않는다.

아침 해가 오른다. 그가 출근 준비를 한다. 두 발에 운동화 끈을 조인다. 오른쪽 무릎을 대신한 의족은 그와 한 몸처럼 움직인다. 차에 오른 그가 시동을 켜다. 왼발로 능숙하게 액셀과 브레이크를 밟는다.

그가 운전하는 차는 부드럽게 도로를 달려 자유로이 진입한다. 차창 너머를 굽어보는 그의 시선이 한강 변을

따라 굽이굽이 뻗은 드넓은 녹색 지대에 가닿는다. 장항습지다. 그의 오른쪽 다리를 앗아간 지뢰가 있던 곳, 동시에 매일 보아도 좋았던 아름다운 장항습지다.

이 기사는 세상과함께와 익친문화재단 길동무 공동 기획으로 진행되는 2024 기후정의 현장르포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링크 <https://omn.kr/2ah8l>

#세상과함께 #현장르포 #김철기

고장난 지하수 펌프, 아이들에게 물이 필요합니다.💧



따옹지 YGW 학교 지하수 펌프 고장으로 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단
방안 **세상과함께**

고장난 지하수 펌프, 아이들에게 물이 필요합니다.

-따옹지 YGW 학교 지하수 펌프 고장으로 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80여명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생활하고 있는 따옹지 YGW 학교에는 한 개의 우물에서 지하수를 끌어 올려 물을 사용합니다. 먹고 마시고 씻는 등 생활 전반에서 사용해야 하는 물 모두 이 한 개의 우물에서 끌어 올립니다.

따옹지 YGW 학교에서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펌프가 고장이 나서 물을 조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급하게 물탱크가 있는 차를 부탁해 외부에서 물을 구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가장 전쟁이 심한 지역이 따옹지 YGW 학교 부근이라 피란민 아이들도 학교에서 함께 돌보고 있습니다. 380여명 아이들과 선생님이 마실 물, 손을 씻고 목욕할 물, 밥을 짓고 국을 만들 물 모두 밖에서 구하는 중입니다.



펌프와 수리비로 학교에 대비 같은 물을 선물해주세요. 여러분의 도움과 후원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소중한 물이 됩니다. 함께해주세요.

우물(펌프) 수리 후원 계좌

농협 301-0313-4145-41(세상과함께)

홈페이지에서 후원하기 : <https://online.mrm.or.kr/nAfMaoF>

세상과함께 정기 후원 함께하기!

링크: <https://online.mrm.or.kr/Wu2d66X>

정기 후원회원이 되어, 세상의 힘이 되어주세요!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010-5940-6198

2024/OCT/18



#세상과함께 #YGW학교 #미안마후원

2024/OCT/21



뒤송송한 용산... 엄마들이 윤 대통령 탄핵집회에 나선 이유

[2024 기후정의 현장르포]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 김은희 대표

이 기사는 세상과함께와 익천문화재단 길동무 공동 기획으로 진행되는 2024 기후정의 현장르포입니다.

기사 보기 : <https://omn.kr/2akzk>

세상과함께 - 불품 후원 소식

나눔으로 10월 풍성한 가을식탁



<마켓레이지 헤븐>에서 결실의 계절 10월에
건강하고 맛있는 떡과 단감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단
법인
세상과함께

건강한 우리 먹거리를 후원해주시는
<마켓레이지 헤븐>에서 10월에는
노란 단호박이 들어간 떡, 들깨떡,
태추단감, 시루떡 등을 보내주셨습니다.

맛있는 떡과 단감은
산돌발달장애대안학교, 청소년도서관 작공,
민들레국수집, 한마음사회서비스센터에
나누어서 보내 보내드렸습니다.

달콤한 단감과 떡으로 쌀쌀한 가을날이
따뜻하고 풍성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단
법인
세상과함께



<단단하고 달디달아 단감이구나 !!>
아이들이 정의한 단감맛입니다.
- 청소년도서관 작공-

사단
법인
세상과함께

제 5 회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 시상식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은 모든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위해 가장 낮은 자세로 삼보일배, 오체투지 했던 정신을 되살리고자 시민 **세상과함께** 가 제정한 상입니다.

[일시] 2024년 10월 27일

[장소] 세종시 세상과함께 센터

사단
법인 **세상과함께**

제5회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 시상식 소식들

지난 10월27일 일요일, 세종시 세상과함께 센터에서 제5회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오마이TV를 통해 방송된 시상식 1,2부 전체 방송과 야단법석TV 영상, 오마이뉴스에 실린 김병기, 박은영님의 기사까지 모아봤습니다.

"땅바닥에 몸도장 찍으며" 자벌레처럼 장군봉 기어오른 까닭
[환경새뜸] 27일, '세상과함께' 제5회 삼보일배오체투지환경상 시상식 열려... 200여명 참가해 오체투지

시상식의 이모조모를 사진과 함께 자세히 담았습니다.

기사보기 : <https://omn.kr/2ar1o>



각자의 환경 투쟁 현장들이 희망...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천막 소식 180-182일차]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 대상 수상

제5회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 대상을 수상한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의 박은영 집행위원장이 직접 쓴 시상식 소식입니다.

기사보기 : <https://omn.kr/2aql4>

제5회 삼보일배 오체투지 환경상 시상식 영상(야단법석tv)

유튜브방송 야단법석TV에서 시상식 현장 소식을 담았습니다.



유튜브 영상보기 : <https://youtu.be/1idZuhTEcfg?si=6tbIHgbf8ULRSUfb>

[생중계] 제5회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 시상식 (2024.10.27 오후)

1부 '삼보일배오체투지 함께하기'와 2부 시상식 전체 영상입니다. 그날의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시상식 생중계 영상보기 : <https://bit.ly/3Yk8ntj>

#삼보일배 #오체투지 #환경상 #시상식



옷을 벗고 쇠사슬 감은 할머니들... 이제 우리 차례
 [2024 기후정의 현장르포] 밀양송전탑반대 청년활동가들 이야기

종일 비가 내리던 지난 6월 8일, 밀양에 1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행정대집행이란 이름으로 농성장을 강제철거한 지 10년 만이었다. 밀양과 청도 삼평리의 송전탑 반대 투쟁은 그야말로 격렬했다. 주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할머니들이 옷을 벗고 쇠사슬로 목을 감았고, 전국에서 연대자들이 모여들었다. 그럼에도 한국전력은 행정대집행을 강행했고 밀양에는 765kV 송전탑이, 삼평리에는 345kV 송전탑이 세워졌다. 전기는 피눈물을 타고 흐르게 됐다.

이 기사는 세상과함께와 익천문화재단 길동무 공동 기획으로 진행되는 2024 기후정의 현장르포입니다.

전체 기사 보기 : <https://omn.kr/2aklv>



2024년 제 5회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 시상식을 마쳤습니다
 -10월 26일 전야제부터 27일 시상식까지 세상과함께 센터에서 환경활동가 200여명과 함께한 시간
 -26일 가을 밤 영평사 산사에서 열린 "길위의 삼보일배", "길위의 오체투지" 출판기념회가 열려...
 -27일 시상식 1부 "함께하는 삼보일배오체투지"에서는 160여명이 장군산 언덕을 자신을 성찰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시간을 가져...
 -지구와 생명의 편에서 선 이들이 연결하고 연대했던 환경상 시상식...
 함께 듣는 환경상 수상자들의 목소리
 "어제 와서 환경운동을 하는 선배님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배우기도 했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체투지를 해봤습니다. 고요한 징 소리에 귀 기울이고 흐르는 물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한 번씩 저도 절을 하러 갑니다. 제가 절을 하는 곳은 도살장 앞입니다. 돼지와 닭들이 줄지어 문을 통과합니다. 저는 문 너머로 갈 수 없고 문 너머에서 이루어지는 죽음을 막을 수 없어서 절을 합니다. 절을 하는 시간 동안 트럭은 굉장히 많이 지나가고 트럭에서 동물들은 비명을 지릅니다. 오물 속 동물들이 내뿜는 냄새를 맡습니다. 알. 모유, 살 자유를 빼앗긴 동물들에게도 연결될 수 있길 바라며 몸을 굽혔습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새벽과 잔디, 무수히 많은 존재들에게 경계없이 연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새벽이생추어리(위리나모상 수상) 활동가 해리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 무서울까요? 보이지 않는 것이 무서울까요? 둘 다 무섭긴 한데 공이 날아오면 무서워도 피할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 노동환경, 교육환경도 마찬가지고, 생활환경, 가정환경, 화학물질이 엄청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무엇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무서운 것은 화학물질에 노출된 후 10년 정도 있다가 암이 발생합니다. 내일 암이 발생하면 ‘이 것 때문이네’ 확인이 되는데, 10년 전에 노출된 화학물질 때문에 암이 걸렸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는 이제 국가의 화학물질 정책을 제안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비전이 한국 사회 뿌리내리고 사회가 전환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오체투지상 수상), 이경석 운영위원장

“석탄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는 내년에는 없어야 합니다. 내년에는 다른 이름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상은 석탄발전소 없애라는 격려인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 멸종위기 시대에 사람과 자연, 지구를



함께 살리는 상을 고민해보라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척석탄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삼보일배상 수상) 하태성 상임대표

“작은것이아름답다는 생태환경 잡지입니다. 내 후년이면 30살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연재했던 꼭지 중에 이현주 할아버지가 아이들의 질문에 대답해주던 꼭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늘 생각하고 있는 글귀 하나가 있습니다.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그가 찾은 대답이 아니라 그의 가슴에 묻혀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해.” 작은것이아름답다는 질문을 하고, 질문을 품고 시대의 행간, 풀과 풀 사이의 행간, 나무와 나무 사이의 행간을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 함께 대답이 되고자 하는 시간을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딱 그만큼 미래가 되고, 내일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것이아름답다 (환경현장활동 및 현장연구 지원지금 3천만원) 김기돈 글모듬지기

글 전체보기 : http://www.twtw.or.kr/bbs/board.php?bo_table=notice_ocher&wr_id=102



시상식 다시보기 : <https://bit.ly/3Yk8ntj>

#환경상 #시상식 #삼보일배 #오체투지

세상과 함께하는 편지 함께레터



▲ 따용지 YGW 학교에 물을 끌어 올리는 펌프가 고장이 나서 물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세상과 함께하는 편지 10월 함께레터

봄계 물들어가는 산, 선선한 바람이 여름내 험겨웠던 몸과 마음을 다독여 줍니다.

지난 주말, 길_위의 삼보일배·오체투지 책 출판기념회와 제5회 삼보일배오체투지 환경상 시상식까지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자신을 성찰 해보고, 지구와 생명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380명의 아이들과 선생님이 쓰고 있는 지하수 펌프가 고장났다는 소식에 많은 회원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발달장애대안학교 산돌학교 소식과 친환경 농업을 통해 자급자족을 위해 노력하는 YGW학교 소식, 수덕사와 보현정사에서 열린 세상과함께 모금행사 소식까지 다양한 소식을 담았습니다.



'빨간 사과'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사과 농부의 한숨
 [2024 기후정의 현장르포] 경남 함양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14년 차 농부 마용운의 이야기

사과밭에 처음 가보았다. 가을을 맞아 빨갭게 혹은 노랗게 열매 맺은 사과나무는 무척 멋졌다. 익숙하지 않은 풍경이었다. 마트 판매대 위의 사과는 그저 먹음직스러운 과일이었는데, 나무에 달린 사과는 다른 존재처럼 느껴졌다. 먹는 것 이상의 신비와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밭을 안내해 준 농부는 곁에서 느린 한숨을 내쉬었다. "원래 사과가 훨씬 많이 달려 있어야 해요." 사과나무를 보고 느끼는 서로 다른 감정은,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그와 나의 차이였다. 농부와 농부가 아닌 이의 거리. 자신만의 기후가 있다. 어느 곳에 머무는지에 따라 체감하는 기후가 다르다. 도시에서는 때안닌 가을 태풍이 불면 좀 더 두꺼운 옷을 꺼내고 우수수 짧게 끝난 단풍을 아쉬워한다. 장마가 길면 제습기를 틀고 더위가 심하면 냉방기를 켜다. 그렇다면 농촌에서는 어떨까? 지난 10월 중순 함양 사과농장과 서울 농부시장에서 두 차례 걸쳐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14년 차 사과 농부 마용운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길_위의 삼보일배, 길_위의 오체투지 출판기념회

10월26일 저녁 6시 반부터, 영평사 생명선원에서 '길_위의 삼보일배', '길_위의 오체투지' 출판기념회가 열렸습니다.

올해 9월 세상과함께는 2003년과 2008년, 2009년 삼보일배와 오체투지 순례에 참여했던 분들이 전해준 사람, 생명, 평화에 관한 이야기를 담아 두 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사진 시화집처럼 현장의 사진들과 당시 참여자들의 생생한 육성을 담았습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쉽게 볼 수 있도록 작업해주신 송경동 작가, 책을 보자마자 출판 결정해주었던 푸른역사 박혜숙 대표 등 많은 내빈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시종일관 묵언하셨지만, 당시 순례를 이끄셨던 성직자 수경스님이 오셔서 더 반가운 시간이었습니다.



송옥규 발간위원장은 “삼보일배 오체투지 순례자들의 모습이 노벨문학상의 소설보다도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당시보다 더 어려워진 현실에 이 정신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며 책이 발간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정인 간사는 “오랜 기간 자료를 함께 찾고 정리한 여러 사람의 노고와 정성, 인터뷰 해주신 분들, 자료를 제공해주신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순례에 참여한 수많은 시민 덕분에 이 책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푸른 역사 김진 편집장은 성직자들이 하루종일 오체투지를 한 후 밤에 텐트에서 “내 다리 잘라줘, 내 팔 잘라줘” 잡고대를 하는 장면에 울라 울었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이 책을 출판할 수 있게되어서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송경동 시인의 삼보일배 시낭송, 먼저 책을 읽은 분들의 낭송과 소감, 아름다운 첼로 선율과 송지우 어린이의 피아노 연주로 출판기념회의 밤은 깊어졌습니다.

삼보일배 오체투지 순례 당시의 ‘모든’ 자료를 찾아서 만 이천 페이지 분량의 자료집을 만들고, 순례진행팀 25명을 인터뷰해서 만든 이 책이 더 많은 분들께 가닿길 바랍니다.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며 한없이 몸을 낮춰,
길 위에서 삼보일배 65일(2003년)
상생의 정신으로 생명과 평화의 길을 걷다

모든 생명체 간 용서와 공존을 기도하고, 지구와 인간과 자연이 하나라는
현만을 가졌던 열린 마음들, 생명 존중의 정신을 실천하려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책은 ‘너는 나의 뿌리이며, 나 또한 너의 뿌리’라는 평등과 공동체 정신을
나부터 돌아보는 성찰의 자세로 상생의 길을 걸었던 많은 분의
발자취를 기록한 것입니다.

-<책을 거둬야> 중에서

환경문화사업 후원 계좌
국민 603101-01-226308 (사) 세상과함께

홈페이지에서 후원하기
<https://online.mrm.or.kr/1Doewvg>
(원하시는 후원 종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과함께 정기 후원 함께하기!
링크: <https://online.mrm.or.kr/Wu2d66X>
정기 후원회원이 되어, 세상의 힘이 되어주세요!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국으로 문자나 전화 주세요.(010-5940-6198)

이제 안심하고
물을 쓸 수 있어요 !



미얀마 따웅지 YGW 학교의
고장난 지하수 펌프 교체를 위한
후원금 모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사단
법인 **세상과함께**

[미얀마 후원] 고장난 지하수 펌프 교체를 위한 후원금이 모금되었습니다!



지난 10월 7일_ 전쟁 한가운데 있는
따웅지 YGW 학교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펌프 고장으로 물을 쓸 수 없게 되어
긴급하게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사단
법인 **세상과함께**

[미얀마 후원] 고장난 지하수 펌프 교체를 위한 후원금이 모금되었습니다!



모두가 꿈꾸던 병원, 대한민국에 이런 의사들도 있습니다
[2024 기후정의 현장르포] 녹색병원 원장 임상혁 "당신과 나를 이어줄 끈이 있다"

30여 년간 노동자의 건강을 위한 연구와 활동을 해온 녹색병원 임상혁 원장(59)은 요즘 병원 일을 하면서 느끼는 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회 양극화가 진짜 심해졌어요. 병원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며 그분의 스토리를 들을 때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도 나오. 정규직 노동자는 다치면 쉴 수도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는 다치면 일이 없어져요. 복귀할 직장이 없고,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점점 더 쪼들리고 힘들어져요. 너무 가슴 아픈 거죠. 어떻게든 이 사람이 다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그게 우리가 할 치료라고 생각해요. 사회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필요한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죠."
질병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하다 아픈 노동자를 치료하는 일은 건강한 노동을 상상하고 사회를 더 낫게 만드는 일과 다르지 않다.



전쟁 속 미얀마 학교 이야기
-사가잉, 까야 YGW 학교 아이들의 기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YGW 학교 선생님들은
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전쟁 속 학교의 231명 식판을,
안전한 삶을 지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쟁 속 아이들과 함께 해주세요.

사가잉 YGW 학교 점심 식사 전 아이들의 기도



"오늘 후원해주시고 도와주신 분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사단
법인 **세상과함께**

미얀마 YGW 학교 긴급구호

1) 후원 계좌
농협 301-0174-7361-31
(사단법인 세상과함께)

2) 홈페이지를 통해서 후원하기
-후원링크
<https://online.mrm.or.kr/Dhej5Ea>

세상과함께 정기 후원 함께하기!
링크: <https://online.mrm.or.kr/Wu2d66X>
정기 후원회원이 되어,
세상의 힘이 되어주세요!

사가잉 YGW 학교 이야기



학교에서는 아직 폭발 소리가 자주 들립니다.
항상 학교 문을 닫아놓고 있지만,
총소리는 들려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단
법인 **세상과함께**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국 (010-5940-6198)로 연락주세요.

#미얀마 #미얀마후원 #연대 #안전 #세상과함께

싶다. 그 천년 뒤에 우리가 없을지라도, 함께 지켜내는 천년이 곳곳의 자연으로 남아 살아갈 수 있다

전체기사보기: <https://omn.kr/2axpu>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생명

#기후정의현장르포 #길동무 #세상과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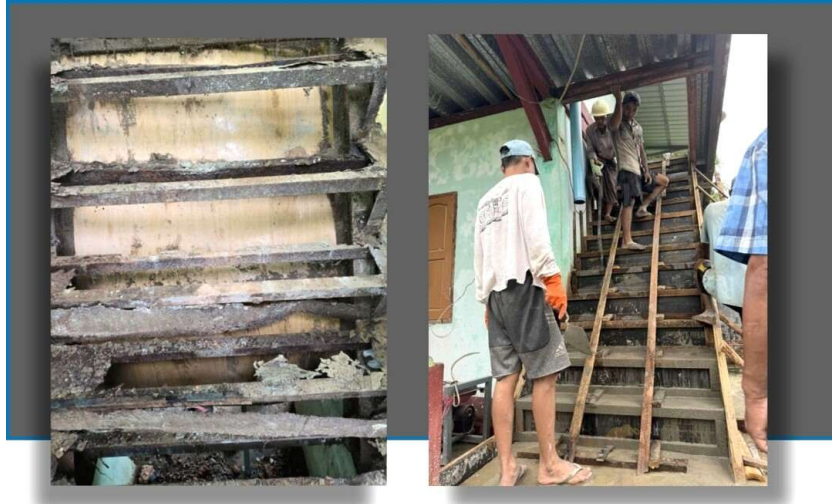
이런 곳에 '공항'이라니... 주민들이 경고하는 까닭

[2024 기후정의 현장르포12]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집행위원 김현욱 활동가

"숲이 천 년이 되면요, 불이 난대요. 어느 날 스스로 발화하는 거야. 불에 타면 어떻게 돼요? 생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거름을 주고 비옥한 땅이 되어 새 씨앗이 돌아요. 일년초가 다년초로, 온갖 나무 균락을 이뤄 다시 천년을 가는 거야. 그런 상상을 해봐요. 백 년을 산 숲이 몇백 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천 년이 되면 어떨까? 천 년 후에 나무들끼리 막 지금을 얘기하면서 야! 천 년 전에 여기에 비행장 만들려 했는데 우리가 지켰지. 같이 수다 떨면 좋겠는데. 제목은 천 년의 숲, 가덕도."

그날이 느리게 올지라도, 그래서 더 의미가 있다. 속도와 효율에 급급한 흐름을 거슬러 오르는 움직임은 천천히 강할 테니까. 잠시 가덕도의 시간을 빌려 살았다면, 더 오래 평화롭게 살아있을 미래로 돌려주고



**노후하고 파손된 기숙사 계단-
보수공사를 지원해서 안전한 계단이 되었어요!
- 미얀마 라뿌타 & 파테인1 YGW 학교 -**

사단
법인 **세상과함께**

[미얀마 후원] 라뿌타 & 파테인1 YGW학교 계단보수공사 지원
노후하고 파손된 기숙사 계단이 보수공사를 지원해서 안전한 계단이 되었어요!

"세상과함께는 가족의 마음으로
전쟁 속에 있는 미얀마 아이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고
튼튼한 미래를 준비합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603101-01-226283

**138개의 부족이 끊임없이
분쟁해 온 나라- 미얀마.**

젊은 스님들이 전쟁과 가난으로
고아가 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세운 학교 YGW(Yellow Generation Wave)
정부지원 없이 후원금만으로 운영하다보니
숙소와 교실이 턱없이 부족하고 열악했습니다



세상과함께는 2016년부터
사가잉YGW를 시작으로 전국의
YGW 학교에 교육주거시설 건축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라뿌타, 파테인YGW
교실과 기숙사 등을 건축했습니다.

사단
법인 **세상과함께**

[미얀마 후원] 라뿌타 & 파테인1 YGW학교 계단보수공사 지원
노후하고 파손된 기숙사 계단이 보수공사를 지원해서 안전한 계단이 되었어요!

"세상과함께는 가족의 마음으로
전쟁 속에 있는 미얀마 아이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고
튼튼한 미래를 준비합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603101-01-226283

2024년- 노후하고 파손되어 위험한 계단!



라뿌타,파테인YGW는 노후하고 파손된 기숙사 계단의 상태를 알리고 보수공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세상과함께는 보수공사가 시급한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9월에 보수공사를 시작하고 11월 현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젠 안심하고 계단을 다닐 수 있어요.**

사단법인 **세상과함께**

[미얀마 후원] 라뿌타 & 파테인1 YGW학교 계단보수공사 지원
노후하고 파손된 기숙사 계단이 보수공사를 지원해서 안전한 계단이 되었어요!

"세상과함께는 가족의 마음으로 전쟁 속에 있는 미얀마 아이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고 든든한 미래를 준비합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603101-01-226283

아이들 마음과 미래의 든든한 토대, 세상과함께 직업교육



♥ 재봉기술 직업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세상과함께**

아이들 마음과 미래의 든든한 토대, 세상과함께 직업교육
-재봉기술 직업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과함께는 작년 네피도 YGW 학교에서 직업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미래의 직업과 관련해 학생들이 많이 배우기 위한 재봉기술을 교육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배우고 스스로 만들어 내는 성취감도 가지며, 졸업 후 재봉사가 많은 미얀마에서 의상 디자이너 꿈을 키우거나, 배우고 익힌 재봉기술을 바탕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진행한 재봉반 1기는 4개월간의 기초반 교육으로 재단부터 8종류 옷 만들기를 하였고, 올해까지 이어진 고급반에서는 교육을 통해 13가지 이상의 옷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고급반에서는 다양한 디자인의 셔츠와 스커트, 이브닝 가운과 신부 드레스까지 배워 전문성이 갖췄습니다. 올해 재봉반 2기는 작년과 달리 신청서를 받고 강사가 면접을 통해 학생들을 선발했습니다. 5월 개강하여 9월 초까지 기초반 과정이 진행되었고, 기초수업 및 블라우스, 치마, 스커트, 줄바지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자발성과

세상과함께 직업교육 - 재봉



기초부터 탄탄히!!

재봉반 2기 시작!



재봉틀과 친해져요.

사단법인 **세상과함께**

수업 참여도가 우수하여 수준 높은 결과물들이 나왔습니다.

학업과 병행하면서도 학생들의 재봉기술 교육에 열기가 뜨겁습니다. 주말에도, 방학에도 배운 것을 익히고 수업 외적으로도 스스로 만드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기초반 학생들은 수업 이후에 배운 내용을 복기하면서 실습 위주로 하는 복습 2개월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고급반으로 넘어갑니다. 고급반에서 더 전문적인 기술도 익히게 됩니다.

세상과함께에서 진행되는 직업교육은 문화창작교육, 친환경농업교육과 더불어 교과서 외적인 세상의 교육을 합니다. 직업교육은 기술을 배우고 스스로 발전시키며, 졸업 후에 자기 삶을 펼칠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직업교육 후원금은 재봉기술 교육비와 재료비로 쓰입니다. 따뜻한 후원과 응원으로 아이들 미래를 함께 밝혀주세요.

직업교육 후원하기

세상과함께 직업교육 - 재봉



강사님께 열심히 배워요



친구들과 함께 해나가요

사단법인 **세상과함께**

직업교육 후원 계좌: 농협 301-0313-4145-41(세상과함께)

홈페이지에서 후원하기: <https://online.mrm.or.kr/M99Ry9w>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010-5940-6198

#직업교육 #자기주도학습 #디자이너 #문화창작교육 #친환경농업교육 #토대



대통령 차에 뛰어드는 대신, 우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2024 기후정의 현장르포13]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들

두 번의 직접행동이 있었다. 석탄발전소를 막으려는 청년들이 벌인 일이다. 첫 번째는 2021년 겨울, 두산 본사의 로고 조형물 위다. 활동가들의 발언이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바람이 거세게 분다. 조형물 위의 활동가들이 위태롭게 흔들린다. 두 번째는 2023년 가을, 삼척석탄화력 공사장 입구다. 강철 외피를 두른 화물차량들이 그들 앞에 줄지어 서 있다. 민소매를 입은 활동가들의 살이 아직 뜨거운 초가를 햇볕에 속수무책으로 익어간다.

살고 있는 곳에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걸 막기 위해서 벌인 일이 아니다. 이들의 주 거처지는 서울-경기도권이고, 이들이 막으려는 석탄화력발전소는 베트남 하띤성과 한국 삼척에 들어설 예정이다. 국가-기업과 직접 부딪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것도 아니다. 잘못하면 자신에게 '불법' 날인이 찍혀 앞날에 걸림돌이 되리라는 것 역시 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자신이 살지도 않는 곳에 들어서는



[국내 -식료품후원 소식 -11월]

나눔으로 풍성한 식탁 <마켓레이지 후원>


함께 나누어서 몇 배 더 풍요롭고 맛있는 식탁!
 주고 받는 모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매달 건강한 우리 먹거리를 후원해주시는
 <마켓레이지 해븐>에서 11월에는 백미, 현미 등의 곡식과
 제철떡 호랑이콩단호박찰떡, 현미와 백미로 만든
 들깨떡, 가래떡, 쫄가래떡 등을
 풍성하게 후원해주셨습니다.
 떡과 곡식은 쪽방촌도우미회, 민들레국수집,

함께 나누어서 몇 배 더 풍요롭고 맛있는 식탁!
주고 받는 모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매달 건강한 우리 먹거리를 후원해주시는
〈마켓레이지 헤븐〉에서 11월에는 백미, 현미 등의 곡식과
제철떡 호랑이콩단호박찰떡, 현미와 백미로 만든
들깨떡, 가래떡, 쑥가래떡 등을
풍성하게 후원해주셨습니다.

떡과 곡식은 쪽방촌도우미회, 민들레국수집,
산돌밭달장애대안학교, 청소년도서관 작공,
열린아동지역센터에 고루 보내드렸습니다.



산돌밭달장애대안학교, 청소년도서관 작공,
열린아동지역센터에 고루 보내드렸습니다.



2024. 11. 12
마켓레이지헤븐
(산돌밭학교)




백미 20kg · 1포
현미 20kg · 1포

- 산돌밭달장애대안학교 -



세상과 함께하는 편지 **함께레터**

아이들 마음과 미래의 든든한 토대, 세상과함께 직업교육



학생들이 직접 만든 치마

♥ 재봉기술 직업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단
법인 **세상과함께**

세상과 함께하는 편지 11월 함께레터

11월에 내린 '기후위기 폭설'과 함께 갑작스레 찾아온 겨울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생명과 평화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두 권의 책에 담았습니다.

또한, 올해도 끝나지 않은 전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피란민들과 사원학교의 소식도 함께 담았습니다.

지역에서 나는 건강한 먹거리를 이웃과 나누는 이야기,

기념일을 더 뜻깊게 기억할 수 있는 '기념일 기부',

그리고 함께 모은 저금통으로 전하는 '저금통 기부' 등

시린 마음을 덥혀줄 11월의 소식을 전합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레터 바로가기 : <https://stib.ee/FeOF>



"이걸 회피하고 개신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위선이었어요"

[2024 기후정의 현장르포] 기후교회 문형욱 활동가 인터뷰

종이 울린다. 예배가 시작된다. 등그렇게 모여 선 사람들이 종소리에 두 눈을 감고 손을 모은다. 분주했던 주변이 고요해진다. 기도의 시간, 바람과 새와 강물 소리가 흐른다. 예배를 드리는 곳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세종보가 보이는 금강변 천막 앞. 처음 보는 이 예배는 생태학살 현장 예배라고 했다.

기복을 바라는 기도는 없다. 흔한 아멘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세종보를 열라는 호소와 흰목물떼새와 도요새를 잃지 않겠다는 다짐, 생명의 편에 서겠다는 약속의 말이 있을 뿐이다. 찬양이나 찬송가도 부르지 않는다. 아니, 함께 부르는 투쟁의 노래가 성가였다. 내가 강이라는 고백과 함께 투쟁가를 따라 부른다. 설교도 찬양도 없는 예배를 드리는 이곳은 '기후교회'라고 했다. 기후교회라니, 무엇을 하는 곳일까.

이 기사는 세상과함께와 익천문화재단 길동무 공동 기획으로 진행되는 2024 기후정의 현장르포입니다.



보증금을 안 받는 이유가... 용산구에 이런 집도 있습니다
 [2024 기후정의 현장르포]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교육홍보이사 차재철, 빈곤사회연대 이재임

...여름에 불지 않은 비빔라면을 먹고, 겨울에 얼지 않은 김밥을 먹을 욕망. 그런 욕망을 존중한다면 적당한 집에서 적당한 생활비를 쓰는 욕망은 당연히 존중받을 수 있지 않을까. 세입자가 아프든 죽어가든 쫓겨나든 외면하고 임대료로 폭리를 취하며 재개발 이익마저 극대화하려는 욕망. 30년도 안 된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짓고 엄청난 탄소를 배출하며 시세차익을 노리는 욕망. 집을 에너지효율이 높고 오래가도록 짓고, 고치고 빌려서 살려는 욕망. 어떤 욕망은 그럴 만하고 어떤 욕망은 그렇지 않은가...

이 기사는 세상과함께와 익천문화재단 길동무 공동 기획으로 진행되는 2024 기후정의 현장르포 입니다.

전체기사보기: <https://buly.kr/jYN7Rz>



폭격으로 파괴된 미얀마 마을

11월의 미얀마 전쟁 피란민 지원 소식

- 2개 지역 총 3534명에게 쌀 850포대 지원 -

사단
법인 **세상과함께**

11월의 미얀마 전쟁 피란민 지원 소식
 -2개 지역 총 3534명에게 쌀 850포대 지원해...

12월 3일 한국에서는 친위 쿠데타를 2시간 만에 막았지만, 미얀마에서는 여전히 내전으로 인해 전쟁 피란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은 산악 지역으로 피신하여 동굴에 숨어 지냅니다. 집들은 폭격으로 파괴되었고, 피란민들은 마을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농촌 지역에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있으면 군부에서는 폭격기로 지역을 황폐화시킵니다.

세상과함께는 지난 11월 6일 전쟁으로 고통 받고 있는 미얀마 피란민에게 카렌난민위원회를 통해 쌀포대 후원을 했습니다. 11월에 두 지역을 지원했습니다. 2024년 11월 15일에 5사단의 Mu Traw 지구(1,655명)에 쌀 430포대를 보냈습니다. 주민들은 6개월 동안 숲에 숨어 있었습니다. 또 6사단의 Doo Pla Ya 지구의 Noh Ter Kaw Township(1,879명)에 쌀 420포대를 지원했습니다. 이 지역 피란민들은 바위 밑과 숲속에서 숨어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카렌주의 피란민들은 마을로 돌아가고 싶지만, 미얀마 군의 공습과 계속되는 무력충돌로 인해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내년 여름에는 전쟁이 더 격화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비상사국입니다. 우리나라를 지켜나가는 마음처럼 미얀마 전쟁 피란민에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미얀마 전쟁 피란민 후원하기
 농협 301-0174-7361-31(사단법인 세상과함께)

▶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하기
<https://online.mrm.or.kr/8CjqhLB>

▶ 세상과함께 정기 후원 함께하기



<https://online.mrm.or.kr/Wu2d66X>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세상과함께 사무국(010-5940-6198)로 연락주세요.

#피란민지원 #세상과함께 #카렌난민위원회 #살포대후원

군부 쿠데타로 4년째 내전 중이지만, 세상의 배움은 계속됩니다. ✨



손수 만든 단추 들고 찐!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밝히는, 세상과함께 문화창작교육

사단법인 **세상과함께**

군부 쿠데타로 4년째 내전 중이지만, 세상의 배움은 계속됩니다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밝히는, 세상과함께 문화창작교육

화상 너머로 보이는 아이들과 선생님 눈빛에 빛이 납니다. 어색하기도 하지만 배우고 함께 나누는 순간, 선생님과 아이들의 열정과 흥미가 화상 화면 너머, 저 멀리 미얀마에서 한국까지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세상과함께가 진행하는 문화창작교육은 학교 밖 잔혹한 전쟁 속에서도, YGW 학교 아이들에게 교과 공부 외에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배움을 하게 합니다.

세상과함께는 2018년부터 미얀마 YGW 학교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문화창작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직접 방문이 어렵더라도, 아이들의 배움을 지속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2개 학교의 참여로 7월부터 11월까지 20주 동안 매주 다양한 교육을 하였습니다. 책놀이, 몸놀이, 바느질, 미술, 보건, 한글을 주제로 배움을 진행하였습니다.

문화장착교육



"미술 시간에 집 만들기!"

사단법인 **세상과함께**

세상과함께는 (재)이다의 명글라바 선생님들과 함께 화상을 통해 미얀마 YGW 학교 선생님들을 매주 만났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며 지도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을 직접 교육하고 소통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주 교육층은 유아부터 초등생 아이들이었습니다. 전쟁으로 학교 밖은 물론, 운동장에서 신나게 뛰어놀기도 제한적이었던 아이들에게, 한국의 '사방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 몸으로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는 몸놀이 교육은 아이들의 움츠러든 몸과 마음이 활짝 피게 하였습니다. 미술 시간에는 집 만들기, 팽이 만들기도 하며 마음껏 생각 속 이미지를 펼쳤습니다. 바느질 수업에서는 치마와 가방 등도 창의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엄선된 책을 통해 진행한 책놀이를 통해 놀이와 배움도 연결하고, 아이들의 다양한 생각과 감각을 이끌어주었습니다. 5월에는 8일간의 한글 캠프도 진행하였습니다. 각 학교 학생과 교사들이 네피도 YGW 학교에 모여 대형 TV를 보면서 온라인으로 한글을 배웠습니다. 보건 수업은 원격 의료진과 연결하여 아이들 삶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위생과 보건에 대해서 교육하였습니다.

문화장착교육은 한정적인 교과 교육을 받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교육으로 경험과 생각을 확장하고,



전쟁 속 불안과 긴장감을 놓고 마음껏 활동하는 시간을 만듭니다. 앞으로도 교육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은 교육 영상과 교과서 제작, 재료비 등에 쓰입니다.

문화장착교육 후원하기

문화장착교육 후원 계좌 : 농협 301-0313-4145-41(세상과함께)

홈페이지에서 후원하기 : <https://online.mrm.or.kr/RuWupbd>

세상과함께 정기 후원 함께하기!

<https://online.mrm.or.kr/Wu2d66X>

정기 후원회원이 되어, 세상의 힘이 되어주세요!



땅 파서 큰돈 버는 사람들... 시골마을엔 '재앙'

[2024 기후정의 현장르포]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기후 위기 시대의 진짜 위기는 '날씨'의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을 것이다. 자급력의 문제가 절박해질 시대에, 소수의 농부가 다수의 도시인을 먹여 살리는 구조 속에서, 우리는 흙과 농촌을 끊임없이 주변화시켜 왔다.

미국의 지형학자 데이비드 몽고메리는 자신의 저서 <흙(Dirt)>에서 '사람들이 밭밭의 흙을 다루는 방식이 문명의 수명을 결정한다'라고 말했다. 흙을 고갈시키며 성장해 온 우리가, '성장'이 아닌 다른 지향점을 찾지 않는다면, 서울 중심의 원근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결국 흙이 고갈되기 전에 인간 문명이 먼저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 기사는 세상과함께와 익천문화재단 길동무 공동 기획으로 진행되는 2024 기후정의 현장르포입니다.



동물이 바다로? 제주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
 [2024 기후정의 현장르포] 제주도 습골을 지키는 사람, 제주녹색당 김순애 위원장

...우리가 계속 개발과 성장을 외친다면 사회는 그렇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멈추고 다른 방식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면 사회는 그렇게 변화할 것이다. 개발 목표가 우선이 아닌 생태 공간에 기반을 둔 사회건설, 그 위에 경제를 고려하는 성장을 이야기할 때다. 아름다운 비경(秘境)을 가진 제주도의 죄가 너무 무겁다.

이 기사는 세상과함께와 익천문화재단 길동무 공동 기획으로 진행되는 2024 기후정의 현장르포입니다.

전체기사보기: <https://buly.kr/AljdPSM>



[미얀마 YGW 긴급구호]
 전쟁 속 사원에 맡겨진 아이들과 함께하는 천일의 기도

미얀마가 혼란과 가난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 이후 내전 4년째, 국민 수 백만명이 폭격으로 집을 잃고 피란민이 되어 떠돌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통신이 끊기고 이동이 제한되어 고립된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국민은 전쟁과 군부의 통제 아래 하루 하루 불안한 시간을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충격을 피해 피난길에 오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먹을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세상과함께는 2021년부터 전쟁 한 복판에 있는 YGW 학교에 식료품을 긴급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며 내일이 보이지 않는 미얀마. 부모의 품을 잃은 아이들이 YGW학교에 맡겨 지고 있습니다.



미얀마가 혼란과 가난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 이후 내전 4년째. 국민 수 백만명이 폭격으로 집을 잃고 피란민이 되어 떠돌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통신이 끊기고 이동이 제한되어 고립된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국민은 전쟁과 군부의 통제 아래 하루 하루 불안한 시간을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총격을 피해 피난길에 오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먹을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사단
법인 **세상과함께**

전쟁 한복판에 있는 5개 YGW 학교에서 보살피는 1,663명의 아이들이 배 굶지 않게 지켜주세요.

" 학교는 고립되어 있습니다. 아이들도 학교 밖을 나가 본 것도 오래전입니다. 우리는 세상과함께에서 매달 보내주시는 지원금으로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까야 YGW 교장스님-

" 외딴 산간지역에 있어 늘 학교살림이 곤궁합니다. 전쟁 이후 다른 학교의 도움으로 버텼지만 모두가 어려워졌습니다. 한국에서 지원해주시면 학교 운영에 숨통이 트이겠습니다. -따마웅 YGW 교장스님 "

전쟁 속에 사원에 맡겨진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천일의 기도

일시특별후원 : <https://online.mrm.or.kr/Dhej5Ea>

3년 정기후원 함께하기: <https://online.mrm.or.kr/Wu2d66X>



세상과함께는 2021년부터 전쟁 한복판에 있는 YGW학교에 식료품을 긴급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사단
법인 **세상과함께**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010-5940-6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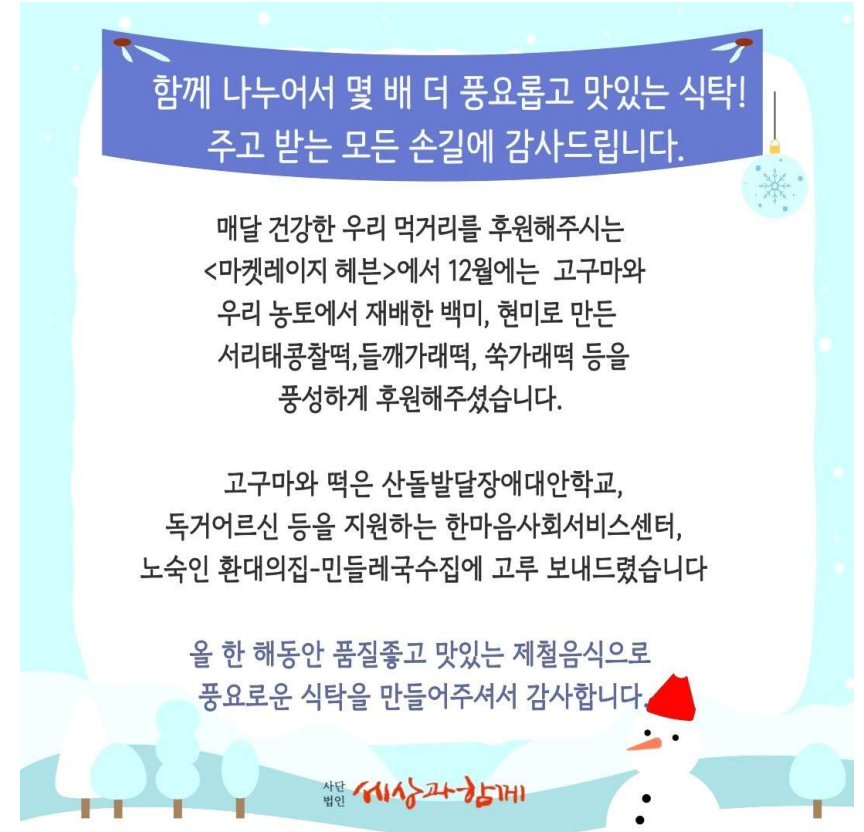
[국내-물품후원소식]마켓레이지 식료품후원-12월

세상과함께 식료품후원 소식-12월
나눔으로 풍성한 식탁

함께 나누어서 몇 배 더 풍요롭고 맛있는 식탁!
주고 받는 모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매달 건강한 우리 먹거리를 후원해주시는
<마켓레이지 헤븐>에서 12월에는 고구마와 우리 농토에서 재배한 백미, 현미로 만든
서리태공찰떡, 들깨가래떡, 쭉가래떡 등을 풍성하게 후원해주셨습니다.

고구마와 떡은 산돌밭달장애대안학교,



독거어르신 등을 지원하는 한마음사회서비스센터, 노숙인 환대의집-민들레국수집에 고루 보내드렸습니다

올 한 해동안 품질 좋고 맛있는 제철음식으로 풍요로운 식탁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떡을 어르신들에게 잘 전달해드렸습니다. 덕분에 우리 어르신들 풍성한 한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며칠 남은 2024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새롭게 다가오는 2025년에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세상과함께'를 통해 세상이 더 밝아지고 따뜻해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마음사회서비스센터장 -"

식료품 및 생필품 후원계좌
농협 301-0313-4138-11
(사단법인 세상과함께)

서리태 콩알떡

“ 떡을 어르신들에게 잘 전달해드렸습니다. 덕분에 우리 어르신들 풍성한 한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며칠 남은 2024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새롭게 다가오는 2025년에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세상과함께'를 통해 세상이 더 밝아지고 따뜻해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서비스센터장 - ”

한마음사회서비스센터

사단법인 세상과함께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세상과함께 사무국
 (010-5940-6198)으로 연락주세요

잔혹한 전쟁 중 퍼트린 사랑,
 여러분의 분유 후원

분유 먹고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

2024년 매달 분유 후원으로 250여 명 영유아를 지켰습니다.

사단법인 세상과함께

잔혹한 전쟁 중 퍼트린 사랑 , 여러분의 분유 후원
 -2024년 매달 분유 후원으로 250여 명 영유아를 지켰습니다.

쿠데타 이후 4년째 전쟁 중인 미얀마. 전쟁의 잔혹함은 아이들에게서 부모의 품을, 삶의 터전을, 식량을 앗아갔습니다. 고아가 되거나 생계가 어려워진 아이들은 미얀마 YGW 학교에 맡겨졌습니다. 선생님들은 기꺼이 아이들을 품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며 키웠습니다. 거기엔 세상과함께의 매달 분유 후원이 든든한 버팀이 되어주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14개 YGW 학교 2세 이하 영유아 250여 명에게 4000통의 분유를 후원하였습니다. 학교 상황을 지속적 소통하여 함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오랜 내전으로 2023년보다 2024년 11월 기준 분유 한 통 값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학교 밖 전쟁의 위협, 비싼 물가지만 감당해야 하는 식량, 눈앞에서 가족을 잃은 아이들, 총소리가 들릴

2024년 분유 한통 릴레이 후원 포스터

3월 분유 한 통 릴레이
 전쟁 속 사원에 맡겨진 영유아들을 함께 키우는
 민택산료셋 (현재는 생후 7개월,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2023년 7월 31일, 태어난 지 5일째 2.2kg로 만달레이 YGW 학교 품으로 온 아기
 미안마 YGW 학교 영유아들을 지켜내는 분유 한 통 11,000원 릴레이 후원에 함께해주세요. (세상과함께)
 농협 301-0192-4967-71

9월 분유 한 통 릴레이
 전쟁 속 사원에 맡겨진 영유아들을 함께 키우는
 생후 2일차, 생후 3일차 같은 날 왔어요. 친구랑 함께 커가요!
 2024년 8월 10일에, 만달레이 YGW 학교 품으로 온 아기들
 미안마 YGW 학교 영유아들을 지켜내는 분유 한 통 11,000원 릴레이 후원에 함께해주세요. (세상과함께)
 농협 301-0192-4967-71

7월 분유 한 통 릴레이
 전쟁 속 사원에 맡겨진 영유아들을 함께 키우는
 마음맞을간 (현재 생후 2개월,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2024년 5월에 태어난 날, 문요 YGW 학교 품으로 온 아기
 미안마 YGW 학교 영유아들을 지켜내는 분유 한 통 11,000원 릴레이 후원에 함께해주세요. (세상과함께)
 농협 301-0192-4967-71

6월 분유 한 통 릴레이
 전쟁 속 사원에 맡겨진 영유아들을 함께 키우는
 빠인릿모셋 (현재 생후 20일, 새 보육차리에 걸린어요)
 2024년 5월에 태어나 9일째 되던 날, 띠이지 YGW 학교 품으로 온 아기
 미안마 YGW 학교 영유아들을 지켜내는 분유 한 통 11,000원 릴레이 후원에 함께해주세요. (세상과함께)
 농협 301-0192-4967-71

사단법인 **세상과함께**

3월 분유 후원 포스터의 민택산료셋
 2023년 7월 27일에 태어나,
 5일 짜 되던 날 2.2kg으로
 만달레이 YGW 학교로 왔습니다.
 처음에 몸이 약하고 아팠었는데,
 지금은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사단법인 **세상과함께**

<https://online.mrm.or.kr/Wu2d66X>

정기 후원회원이 되어, 세상의 힘이 되어주세요!

#세상과함께 #분유한통후원 #단비같은사랑 #따뜻한의지처 #우리가퍼트린사랑 #함께해주세요

때마다 느껴지는 아이들의 불안과 긴장, 한순간에 폭격으로 불탄 마을, 미안마의 지금은 4년의 전쟁으로 피폐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분유 후원은 그런 미안마 아이들에게 단비 같은 사랑이고 따뜻한 의지입니다. 전쟁 중에도 아이들은 후원한 분유를 먹으며 무럭무럭 씩씩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한해 사랑을 퍼트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은 참혹한 전쟁 중인 미안마 아이들에게 더 지속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2025년에도 분유 후원에 함께해주세요.

분유 한 통 릴레이 후원하기

농협 301-0192-4967-71 (사단법인 세상과 함께)

홈페이지에서 후원하기 : <https://bit.ly/3y7SGcB>

세상과함께 정기 후원 함께하기!

링크:



군부 쿠데타 이후 내전 4년째
미얀마는 혼란과 가난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상과함께

[미얀마 긴급구호] 전쟁 속 미얀마 아이들과 피란민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는 끝없는 내전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수많은 마을이 파괴되고, 산속 깊숙이 숨어 살아가는 피란민들은 오늘 한 끼 먹을 쌀조차 구하기 어렵습니다. 고아 학교의 아이들은 후원이 끊겨 분유와 식량이 절실합니다.

세상과함께 회원이 되어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주세요..

정기후원으로 함께하기 : <https://online.mrm.or.kr/Wu2d66X>

일시후원으로 함께하기 : <https://online.mrm.or.kr/Dhej5Ea>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고아학교 아이들과 밀림 속 피란민들에게
분유와 식량이 절실합니다.

세상과함께

010-5940-6198

#세상과함께 #미얀마 #전쟁 #피란민 #고아 #후원 #함께 #정기후원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세상과함께 회원이 되어주세요.

사단
법인 **세상과함께**



삼청과 1000일 넘게 싸운 사람 , 그가 지치지 않았던 비결
[2024 기후정의 현장르포] 반올림 상임활동가 권영은

...'왜 나는 여기서 숨쉬기가 불편할까?' 스스로에게 물었던 스물여섯의 청년은 자기가 조금 더 숨쉬기 좋은 곳을 찾아 나섰다. 살아가면서 이진 아니라고 외치는 마음의 목소리가 들리면 새로운 답을 찾아 나갈 뿐이었다. 그렇게 그려진 삶의 궤적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쏘아진 화살이랑기보다,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새의 움직임과 닮았다. 다음 일정을 위해 부랴부랴 뛰어 가는 영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어느 시 한 구절이 떠올랐다.

이 기사는 세상과함께와 익친문화재단 길동무 공동 기획으로 진행되는 2024 기후정의 현장르포입니다.

전체기사보기: <https://omn.kr/2blfk>

2024/DEC/31

세상과 함께하는 편지 함께레터



[뉴스레터] 세상과 함께하는 편지 12월 함께레터

제후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유난히 힘들었던 12월이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나아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세상과함께는 올해도 전쟁으로 고통받는 미얀마 피란민과 고아학교 아이들을 돕고, 국내에서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식료품을 나누며 발달장애인학교 지원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도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세상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레터 바로가기 : <https://stib.ee/kvoF>



2024/JAN/15

1월 쌀 한포대 릴레이

자본은은 일본 밭고 짓고 있는 카렌 피란민 가족

쌀 한 포대 25,000원 후원은 미얀마 전쟁 난민에게 한 달간의 소중한 식사와 구호물품이 됩니다.

후원 계좌: *통입 301-0174-7361-31 (세상과함께)
*세상과함께

2024/JAN/31

2월 쌀 한포대 릴레이

2024년 12월 20일 생 스터블링

쌀 한 포대 25,000원 후원은 미얀마 전쟁 난민에게 한 달간의 소중한 식사와 구호물품이 됩니다.

후원 계좌: *통입 301-0174-7361-31 (세상과함께)
*세상과함께

12월 20일 생 스터블링 후원은 미얀마 전쟁 난민에게 한 달간의 소중한 식사와 구호물품을 제공합니다. 후원 계좌: *통입 301-0174-7361-31 (세상과함께) *세상과함께

2024년 12월 20일 생 스터블링 후원은 미얀마 전쟁 난민에게 한 달간의 소중한 식사와 구호물품을 제공합니다. 후원 계좌: *통입 301-0174-7361-31 (세상과함께) *세상과함께

2024년 12월 20일 생 스터블링 후원은 미얀마 전쟁 난민에게 한 달간의 소중한 식사와 구호물품을 제공합니다. 후원 계좌: *통입 301-0174-7361-31 (세상과함께) *세상과함께

2024년 12월 20일 생 스터블링 후원은 미얀마 전쟁 난민에게 한 달간의 소중한 식사와 구호물품을 제공합니다. 후원 계좌: *통입 301-0174-7361-31 (세상과함께) *세상과함께

2024/FEB/28

3월 분유 한통 릴레이

2023년 7월 30일, 태어난 지 3달째 22살, 발달장애 YGW 학교 동료로 온 아기

미얀마 YGW 학교 영유아들을 지켜내는 분유 한 통 11,000원 릴레이 후원에 함께해주세요. *통입 301-0192-4967-71 (세상과함께) *세상과함께

2024/MAR/15

3월 쌀 한포대 릴레이

쌀 한 포대 25,000원 후원은 미얀마 전쟁 난민에게 한 달간의 소중한 식사와 구호물품이 됩니다.

후원 계좌: *통입 301-0174-7361-31 (세상과함께)
*세상과함께

2024/MAR/31

4월 분유 한통 릴레이

2023년 11월 태어난 1살 4개월, 발달장애 YGW 학교 동료로 온 아기

미얀마 YGW 학교 영유아들을 지켜내는 분유 한 통 11,000원 릴레이 후원에 함께해주세요. *통입 301-0192-4967-71 (세상과함께) *세상과함께

3월 28일 생 스터블링 후원은 미얀마 전쟁 난민에게 한 달간의 소중한 식사와 구호물품을 제공합니다. 후원 계좌: *통입 301-0174-7361-31 (세상과함께) *세상과함께

2024년 3월 28일 생 스터블링 후원은 미얀마 전쟁 난민에게 한 달간의 소중한 식사와 구호물품을 제공합니다. 후원 계좌: *통입 301-0174-7361-31 (세상과함께) *세상과함께

3월 15일 생 스터블링 후원은 미얀마 전쟁 난민에게 한 달간의 소중한 식사와 구호물품을 제공합니다. 후원 계좌: *통입 301-0174-7361-31 (세상과함께) *세상과함께

2024년 3월 15일 생 스터블링 후원은 미얀마 전쟁 난민에게 한 달간의 소중한 식사와 구호물품을 제공합니다. 후원 계좌: *통입 301-0174-7361-31 (세상과함께) *세상과함께

3월 31일 생 스터블링 후원은 미얀마 전쟁 난민에게 한 달간의 소중한 식사와 구호물품을 제공합니다. 후원 계좌: *통입 301-0174-7361-31 (세상과함께) *세상과함께

2024년 3월 31일 생 스터블링 후원은 미얀마 전쟁 난민에게 한 달간의 소중한 식사와 구호물품을 제공합니다. 후원 계좌: *통입 301-0174-7361-31 (세상과함께) *세상과함께

2024/MAR/31

4월 분유 한통 릴레이

부모를 떠나 세상의 동료로 온 아이들에게 분유를 선물해주세요. 분유 후원은 아이들의 삶에 도움이 됩니다. *통입 301-0192-4967-71 (세상과함께) *세상과함께

2024/APR/18

4월 쌀 한포대 릴레이

쌀 한 포대 25,000원 후원은 미얀마 전쟁 난민에게 한 달간의 소중한 식사와 구호물품이 됩니다.

후원 계좌: *통입 301-0174-7361-31 (세상과함께)
*세상과함께

2024/MAY/4

5월 분유 한통 릴레이

2023년 7월 태어난 3개월 2살, 발달장애 YGW 학교 동료로 온 아기

미얀마 YGW 학교 영유아들을 지켜내는 분유 한 통 11,000원 릴레이 후원에 함께해주세요. *통입 301-0192-4967-71 (세상과함께) *세상과함께

4월 28일 생 스터블링 후원은 미얀마 전쟁 난민에게 한 달간의 소중한 식사와 구호물품을 제공합니다. 후원 계좌: *통입 301-0174-7361-31 (세상과함께) *세상과함께

2024년 4월 28일 생 스터블링 후원은 미얀마 전쟁 난민에게 한 달간의 소중한 식사와 구호물품을 제공합니다. 후원 계좌: *통입 301-0174-7361-31 (세상과함께) *세상과함께

4월 18일 생 스터블링 후원은 미얀마 전쟁 난민에게 한 달간의 소중한 식사와 구호물품을 제공합니다. 후원 계좌: *통입 301-0174-7361-31 (세상과함께) *세상과함께

2024년 4월 18일 생 스터블링 후원은 미얀마 전쟁 난민에게 한 달간의 소중한 식사와 구호물품을 제공합니다. 후원 계좌: *통입 301-0174-7361-31 (세상과함께) *세상과함께

4월 4일 생 스터블링 후원은 미얀마 전쟁 난민에게 한 달간의 소중한 식사와 구호물품을 제공합니다. 후원 계좌: *통입 301-0174-7361-31 (세상과함께) *세상과함께

2024년 4월 4일 생 스터블링 후원은 미얀마 전쟁 난민에게 한 달간의 소중한 식사와 구호물품을 제공합니다. 후원 계좌: *통입 301-0174-7361-31 (세상과함께) *세상과함께

전쟁 속 사원에 맡겨진 영유아들을 함께 키우는
1월 분유 한 통 릴레이

아웅 오바 묘셋
2024년 8월 31일생

마와노 묘셋
2024년 9월 4일생

만달레이 YGW 학교에서
4개월째 함께 지내고 있어요

미안마 YGW 학교 영유아들을 지켜내는
 분유 한 통 11,000원 릴레이 후원에 함께해주세요.
 농협 301-0192-4967-71 (세상과함께)

사단
법인 **세상과함께**

2025년 뜨거운 나눔의 시작, 1월 분유 한 통 릴레이 후원

쿠데타 발발 3년 11개월이 된 미안마. 치참한 전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빈곤층과 식량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아이들은 세상에 태어나고 자랍니다. 고아가 된 아이들, 당장 먹고 살 형편이 안되는 아이들을 품어준 곳. 미안마 YGW 학교는 전쟁 중에도 많은 아이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세상과함께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습니다.

2024년 9월 만달레이 YGW 학교에서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아웅 오바 묘셋과 마와노 묘셋은 만났습니다. 그리고 4개월째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후원해주신 분유로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랍니다.

12월에는 미안마 12개의 YGW 학교 영유아 237명에게 400여 통의 분유를 후원하였습니다. 2025년 새해에도, 뜨거운 마음을 아이들에게 나눠주세요.

특별한 후원

**당신의 특별한 후원,
누군가에게 선물이 됩니다.**

특별 후원

함께 모은
저금통후원

일상의 소중한 감사한 순간,
특별한 선물


기념일 기부
특별 후원
저금통 후원

www.twtw.or.kr

기념일 기부

사단
법인 **세상과함께**


아이 돌 기념



강태이군 첫 돌(2023.12.23) 기념 가족, 지인들의 축하금을 모아서 분유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 장승희 회원님 -

☎ 세상과 함께

두돌 기념



"민결이가 두돌을 맞이했습니다. 주변에 도움 덕에 사랑 많이 받으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받은 사랑을 미안마 아이들과 조금이나마 나누고자 민결이 용돈으로 분유 후원합니다. 지구의 아이들 모두 행복하길요!"
- 민결이 부모님의 편지

☎ 세상과 함께

기증 완료된 2월의 기념일 기념
-당신의 특별한 날이 누군가에게 선물이 됩니다.


기념일 기부 후원 계좌
국민 603101-01-226283 (사) 세상과함께

휴먼이에서 후원하기
<https://bit.ly/3ShPzh>
(원하시는 후원 종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국으로 문의나 전화 주시면 0110-5940-6198

#세상피함께 #생일기부 #기념일기부 #기부 #후원


입대 기념



우면스님께서 영평사 영관스님 입대하는 날, 군법사로 포교 잘하고 돌아오라는 의미로 카렌 피란민을 위해 쌀 20포대 후원하셨습니다.

☎ 세상과 함께

생일 기념



길경숙님께서 3월 24일 생일 기념으로 분유 후원금 보내주셨습니다.

☎ 세상과 함께

천일기도 기념



"천일기도 함께한 도반들과 회향의 의미로 마음을 모아 전합니다."
-도반 선원 일동-

☎ 세상과 함께

건강 기원의 마음

공주 한마음선원에서 건강을 기원하는 뜻을 담아 김영태님이 올리신 기도금으로 분유 후원 하셨습니다.

☎ 세상과 함께

함께 나누는기쁨

홍나정님께서 아드님이 회사에서 좋은실적으로 받은 인센티브를 뜻깊은 일에 나누고자 제안하셔서, 두분이 함께 마음 모아 쌀 후원금 보내주셨습니다.

☎ 세상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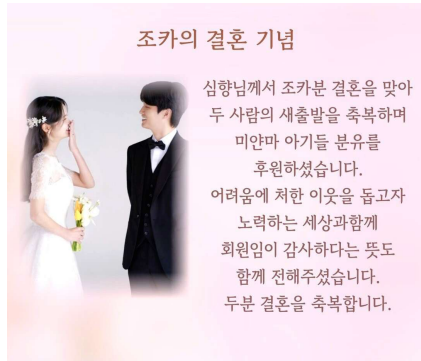
생일 기념

이한선 회원님이 76세 생일을 맞아 분유 후원 하셨습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이지만 전쟁으로 어려운 아이들에게 분유 한통이라도 더 먹이는 마음을 담아 보내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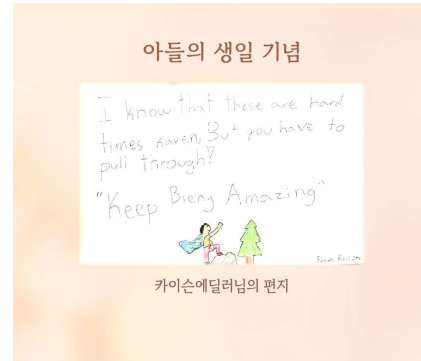
☎ 세상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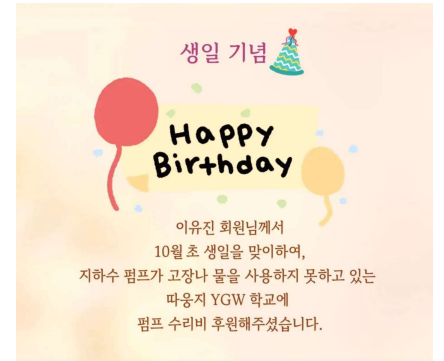
세상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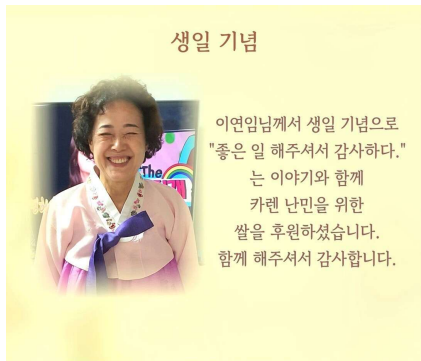
세상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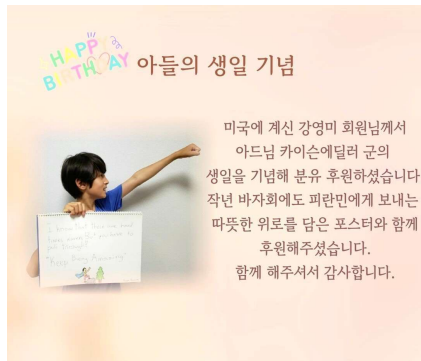
세상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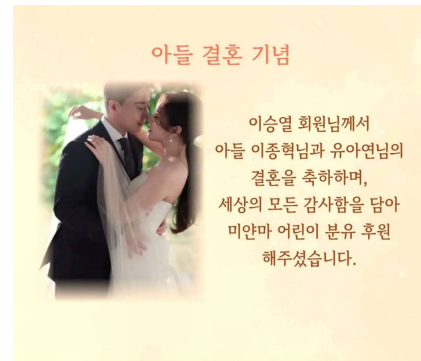
세상과 함께



세상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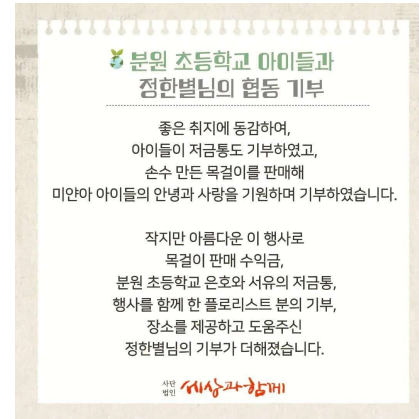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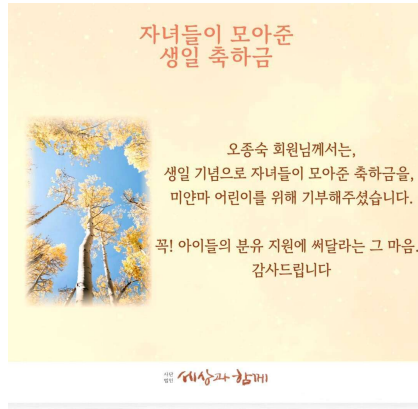
세상과 함께



세상과 함께



세상과 함께



특별한 6월의 후원
-함께 나누면, 세상이 밝아집니다.

복병후원 계좌
국민 603101-01-226283 (사) 세상과함께

홈페이지에서 후원하기 : <https://bit.ly/3fsh2zh>
(원하시는 후원 종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국으로 문의나 전화 주세요.
세상과함께 사무국: 010-5940-6198

#세상과함께 #기부 #미안마 #분원초등학교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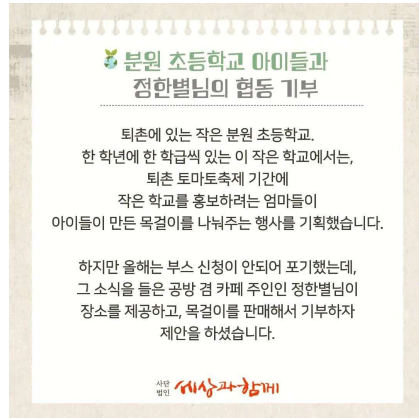
특별한 6월의 후원
-함께 나누면, 세상이 밝아집니다.

복병후원 계좌
국민 603101-01-226283 (사) 세상과함께

홈페이지에서 후원하기 : <https://bit.ly/3fsh2zh>
(원하시는 후원 종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국으로 문의나 전화 주세요.
세상과함께 사무국: 010-5940-6198

#세상과함께 #기부 #미안마 #분원초등학교 #후원



특별한 6월의 후원
-함께 나누면, 세상이 밝아집니다.

복병후원 계좌
국민 603101-01-226283 (사) 세상과함께

홈페이지에서 후원하기 : <https://bit.ly/3fsh2zh>
(원하시는 후원 종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국으로 문의나 전화 주세요.
세상과함께 사무국: 010-5940-6198

#세상과함께 #기부 #미안마 #분원초등학교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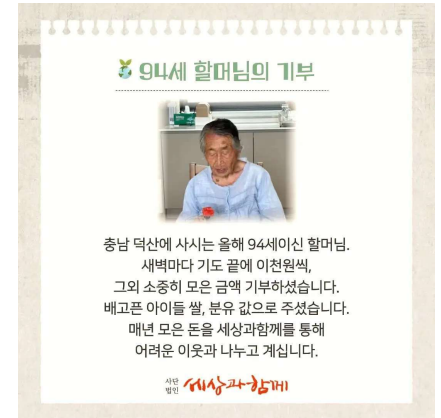
특별한 6월의 후원
-함께 나누면, 세상이 밝아집니다.

복병후원 계좌
국민 603101-01-226283 (사) 세상과함께

홈페이지에서 후원하기 : <https://bit.ly/3fsh2zh>
(원하시는 후원 종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국으로 문의나 전화 주세요.
세상과함께 사무국: 010-5940-6198

#세상과함께 #기부 #미안마 #분원초등학교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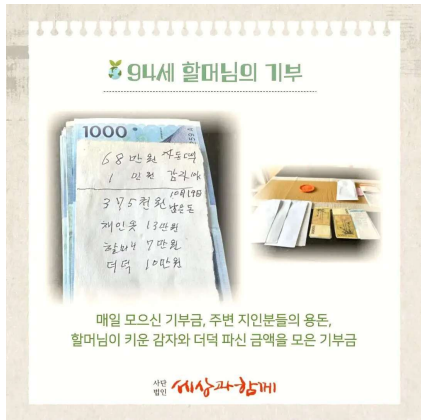
특별한 6월의 후원
-함께 나누면, 세상이 밝아집니다.

복병후원 계좌
국민 603101-01-226283 (사) 세상과함께

홈페이지에서 후원하기 : <https://bit.ly/3fsh2zh>
(원하시는 후원 종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국으로 문의나 전화 주세요.
세상과함께 사무국: 010-5940-6198

#세상과함께 #기부 #미안마 #분원초등학교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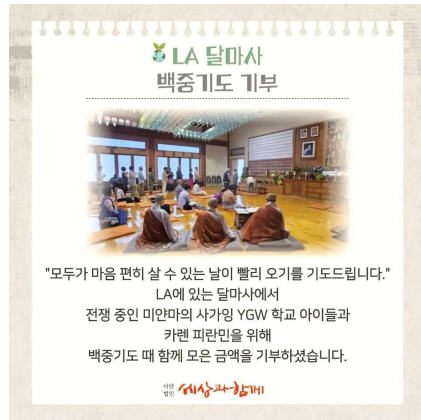
특별한 6월의 후원
-함께 나누면, 세상이 밝아집니다.

특별후원 계좌
국민 603101-01-226283 (사) 세상과함께

홈페이지에서 후원하기 : <https://bit.ly/3fsh2zh>
(원하시는 후원 종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국으로 문의나 전화 주세요.
세상과함께 사무국: 010-5940-6198

#세상과함께 #기부 #미얀마 #분원초유하고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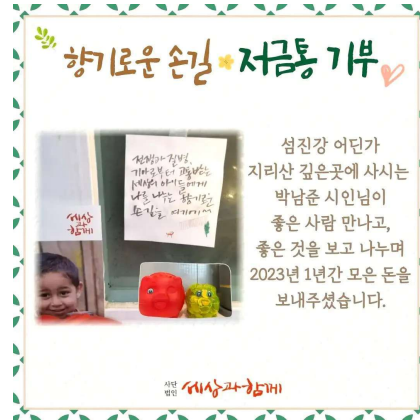


특별한 8월의 후원
-함께 나누면, 세상이 밝아집니다.

특별후원 계좌
국민 603101-01-226283 (사) 세상과함께

홈페이지에서 후원하기 : <https://bit.ly/3fsh2zh>
(원하시는 후원 종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국으로 문의나 전화 주세요.
세상과함께 사무국: 010-5940-6198



향기로운 손길, 저금통 기부

저금통 기부금은 지정해주시 후원처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나를 나누는 따뜻한 손길,
함께 해주세요.

저금통 기부 문의: 세상과함께 사무국(010-5940-6198)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010-5940-6198

#세상과함께 #저금통기부 #기부 #후원 #모금



향기로운 손길, 저금통 기부

저금통 기부금은 지정해주시 후원처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나를 나누는 따뜻한 손길,
함께 해주세요.

저금통 기부 문의: 세상과함께 사무국(010-5940-6198)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010-5940-6198

#세상과함께 #저금통기부 #기부 #후원 #모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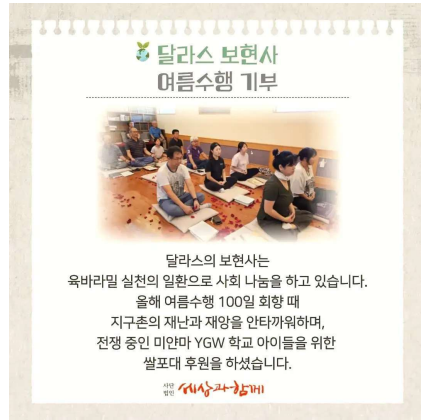


특별한 8월의 후원
-함께 나누면, 세상이 밝아집니다.

특별후원 계좌
국민 603101-01-226283 (사) 세상과함께

홈페이지에서 후원하기 : <https://bit.ly/3fsh2zh>
(원하시는 후원 종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국으로 문의나 전화 주세요.
세상과함께 사무국: 010-5940-6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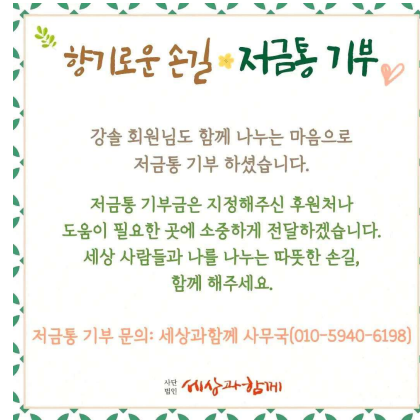


특별한 8월의 후원
-함께 나누면, 세상이 밝아집니다.

특별후원 계좌
국민 603101-01-226283 (사) 세상과함께

홈페이지에서 후원하기 : <https://bit.ly/3fsh2zh>
(원하시는 후원 종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국으로 문의나 전화 주세요.
세상과함께 사무국: 010-5940-6198



향기로운 손길, 저금통 기부

저금통 기부금은 지정해주시 후원처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나를 나누는 따뜻한 손길,
함께 해주세요.

저금통 기부 문의: 세상과함께 사무국(010-5940-6198)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010-5940-6198

#세상과함께 #저금통기부 #기부 #후원 #모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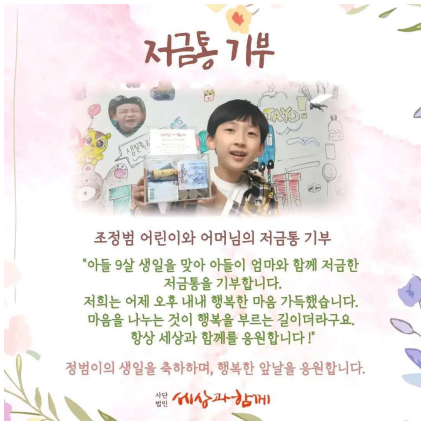
하나의 동전이 모여 이웃을 지키는, 저금통 기부

동전 한개, 두개가 모이면
살이 되고 분유가 되어
아이들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저금통 기부에 함께 해주세요.
아이들 책상 위, 가게 프론트 옆, 사무실 선반...
저금통으로 나눔의 손길을 남겨주세요.

후원금은 지정하신 곳, 혹은 교차 학교 아이들의 분유와 쌀포대 지원합니다.

저금통이 필요한 분, 기부하실 분은 사무국으로 문의주세요.



3월의 저금통 기부

동원 한 개, 두 개가 모이면 많이 되고 분유가 됩니다. 저금통 기부에 함께해주세요.

저금통이 필요하신 분, 기부하실 분은 사무국으로 문의주세요. 세상과함께 사무국: 010-5940-6198

#세상과함께 #저금통 #기부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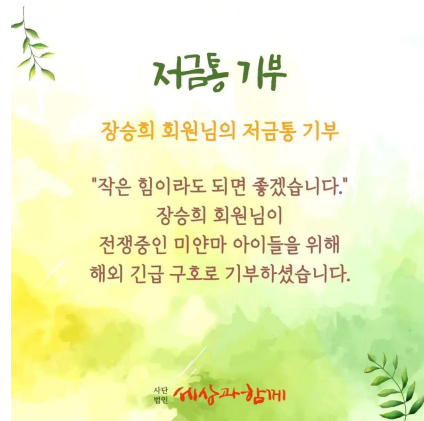


3월의 저금통 기부

동원 한 개, 두 개가 모이면 많이 되고 분유가 됩니다. 저금통 기부에 함께해주세요.

저금통이 필요하신 분, 기부하실 분은 사무국으로 문의주세요. 세상과함께 사무국: 010-5940-6198

#세상과함께 #저금통 #기부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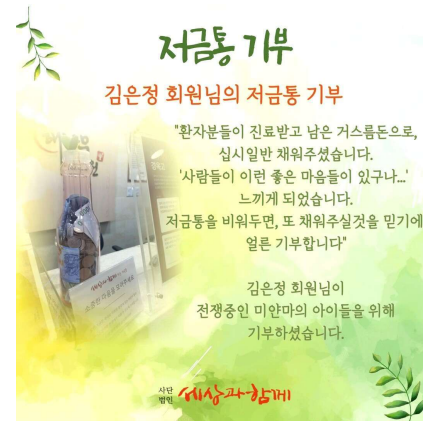


5월의 저금통 기부

저금통이 필요하신 분, 기부하실 분은 사무국으로 문의주세요.

세상과함께 사무국: 010-5940-6198

#세상과함께 #저금통 #기부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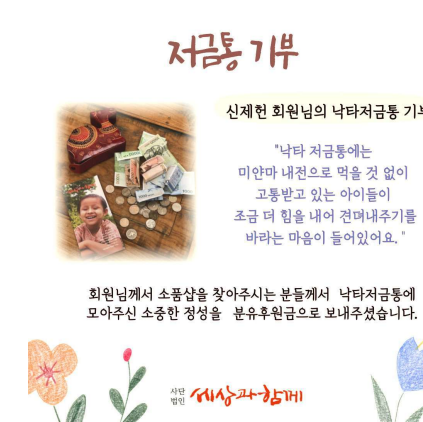


11월의 저금통 기부 소식입니다~

11월의 저금통 기부

저금통이 필요하신 분, 기부하실 분은 사무국으로 문의주세요.

세상과함께 사무국: 010-5940-6198



3월의 저금통 기부-후원께 소식입니다

신제현 회원님의 낙타저금통 기부와 이계승 회원님의 저금통 기부 소식 전해드립니다.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신 저금통 기부에 감사드립니다.

동원 한 개, 두 개가 모이면 많이 되고 분유가 됩니다. 저금통 기부에 함께해주세요.

저금통이 필요하신 분, 기부하실 분은 사무국으로 문의주세요. 세상과함께 사무국: 010-5940-6198



3월의 저금통 기부-후원께 소식입니다

신제현 회원님의 낙타저금통 기부와 이계승 회원님의 저금통 기부 소식 전해드립니다.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신 저금통 기부에 감사드립니다.

동원 한 개, 두 개가 모이면 많이 되고 분유가 됩니다. 저금통 기부에 함께해주세요.

저금통이 필요하신 분, 기부하실 분은 사무국으로 문의주세요. 세상과함께 사무국: 010-5940-6198

제작일
2025.01.16



The Bollog Book-provided layout designs and graphic elements are copyright Bollog Book, 2014.
This book was created using the Bollog Book creative publishing service.
The book author retains sole copyright to his or her contributions to this book.